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4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7)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5)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9)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23.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요청안
24.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2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2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2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2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2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2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2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3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3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3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3
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3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3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3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7)	3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5)	3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9)	3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3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2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3
23.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요청안	10
24.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	10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7)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5)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9)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

○전종덕 위원 첫 번째 방망이를 때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거는 야당 간사 협의하에 지금 올라온 건데 간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의견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 아니, 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는 안이고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재논의를 해서 차기 회의 때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위원장님,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지 않았나요? 전종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소위원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그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에 대한 할증을 일괄적으로 없애자라는 의견과 그것을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그 시행령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형태로 해서 그때 다른 의견 없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은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관련해서 이원택 간사님 말씀처럼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든 거대 재

해든 간에 이것은 자연재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자연재해의 뭐랄까, 종류라 할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을 물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했던 기조와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게 수정안이 지금 대안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구도 한번 봐 보십시오.

○이원택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대안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법안에는 이렇게 안 담겨 있잖아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이원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전종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예측 가능 여부라든지,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시행령에 기준으로 담기로 했는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이것은 피해 기준에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에 따라서 할증을 해 줄 수도 있고 할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애초에 논의했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그날 대통령령의 기준이 어떻게 잡힐 건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전종덕 위원 법안이 먼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원택 위원 자연재해 기준인데 대통령령에서 자연재해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이 쟁점인 거고.

그래서 그때 차관님도 계시는데 할증을 없애야 된다는 원칙—자연재해는 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그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것에 입각해서 시행령의 자연재해 기준을 잡을 텐데 그 자연재해 기준 초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하기로 해서 자연재해 기준이 예를 든다면 동일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자연재해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으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때는 저희가 이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연재해의 기준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안을 정부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견 없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행령안을 보고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아니, 시간을 여기서.....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법률이 먼저 제정되고 나서 법률 제정에 기초해서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시행령을 보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은 어차피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의 종류에 대한 기준이지 피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출된 대안의 내용은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류하셔서 좀 다시 재논의를 해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소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당 간사님, 전종덕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택 위원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렇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마지막에 시행령 초안을 보자고 그랬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바로 법안 개정을 내기로 했거든요. 바로 법안 개정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재해보험법의 할증을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원칙의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50억뿐이 안 들어가요. 할인율이나 할증료를 합치면 할증해 가지고 할인율을 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250억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충분히 그런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초안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시행령 시정 촉구하고 아니면 개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법안은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농업 4법을 제정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안 기준보다 더 하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시간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닐 텐데 굳이 첫 번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거부권 법안보다 더 후퇴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원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증을……

○이원택 위원 이게 후퇴하는 법안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전종덕 위원 할증을 없애는 것이 기본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 피해 기준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할증을 할 수도 있고 할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안이 후퇴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측은 경감하겠다는 건데 저희들 입장은 경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고, 경감이라는 건 지난 정부보다는 진일보한 거고 후퇴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피해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재해도 결국 피해 기준으로 합니다. 몇 헥타르 피해가 발생했느냐, 금액이 몇 헥타르 이상의 피해

액이 발생했느냐. 결국은 피해 기준으로 자연재해도 산출이 됩니다. 자연재해의 산출 기준이 헥타르와 금액으로 피해 기준이 산출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자연재해를 산출하는 기준이 헥타르와 금액으로 돼 있는 피해 기준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그 피해 기준 적용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경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정부가 그런 입장에서 시행령 안을 만들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무난하게 넘어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에서 후퇴된 안이 나온다면 시행령 안에 대한 개정을 저희들이 요청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법안 개정에도 들어갈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날 양해가 됐고 위원님도 계셨으니까 오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입장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는 건 불필요한 것 같고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후퇴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 속에서.

일단 자연재해 등으로 앞에 조건 없이 명시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에서 제외한다는 정신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놔두면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내용을 두고, 대신에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입법취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시행령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내용이 미흡하다 그러면 입법적으로 그 부분도 치유하자, 여기까지 소위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에 선행되는 일차적인 법이니 만큼 효능감 있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위에서 의결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전종덕 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저도 이 법안소위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초에 동의해서 이 법안이 개정 통과되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으로, 여기 개정안으로 나온 내용은 그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자연재해는 할증하지 않는다가 핵심인데 이것을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법안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문금주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오해가 있을 법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당초 지금 올라온 대안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온 대안이 아니고 그날 법안소위에서 이 대안을 가지고 자꾸 하나하나 보면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그냥 자연재해나 해 가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 전종덕 위원이 참여하시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다시 수정안을 우리가 제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종덕 위원님 말씀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들었고요.

차후에 전종덕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오늘은 그냥 상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원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문대림 의원, 송옥주 의원, 어기구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문대림 의원, 송옥주 의원, 어기구 의원, 문금주 의원, 박수현 의원, 박상웅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관련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까 충분히 얘기했는데 또……

전종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같이 이 법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보다는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접수하고요. 시행령 만들 때 전종덕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자연재해 피해는 할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만든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우려가 큰데 잘 유념해서 시행령 잘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하고……

○전종덕 위원 일단 반대, 반대합니다, 저는.

(「표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어기구 이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반대합니다.

○송옥주 위원 이미 회의록에 다 기록되었어요.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반대의견 1인 접수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요청안

24.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

(10시28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전재수 후보자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보충질의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전재수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후보자 전재수

○위원장 어기구 이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 범위 내로 제한돼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생각해 왔습니다. 바다의 가능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늘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었습니다. 해운·항만 산업은 바닷길을 통해 우리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왔고 수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해양산업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그 존재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양수산부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북극항로라는 새 바닷길이 전 세계 경제활동 변혁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산업·사법·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습니다.

그 첫 단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유엔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여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기후위기는 해운물류뿐만 아니라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저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혁신입니다.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계로 전환시키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물 수급 관리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점차 가시화되는 국제사회의 친환경 규제는 우리의 해운·항만 산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하여 K-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세 번째 정책 어젠다로 삼았습니다.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선박과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습니다.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심화에 대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여건은 해양수산정책 전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촌과 연안을 기회의 땅으로 활용하여 활력이 넘치게 만들겠다는 것을 네 번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서나 바다가 주는 혜택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거점 연안지역에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 어촌체험, 생태관광, 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어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입지를 설정하고 지역 주민, 어업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익 공유 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청정한 바다 조성에 한층 더 앞장서겠습니다. 독도, 영해기점도서, 무인도 등의 해양영토 관리를 보다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우리 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해양쓰레기와 폐어구의 전주기 관리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다에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저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깊이 새기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다.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또 정책질의에는 기존 해수부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 여러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저희 의원실에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장님께서서는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서면답변이 부실한 걸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출마 계획이 있는지라는 저희 의원실의 질문에 ‘현재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해수부와 해양수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관후보자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 후보자는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미제출 목록은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후보자님, 늘 청문회 때나 우리 회의 때 자료제출 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희용 간사님 자료제출 사항을 성실하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드리는데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장님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후보자님을 잘 아는 관계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취지와 또 이 청문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게 위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인사청문 준비하시면서 위원들의, 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자세를 보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번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보여 주었던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하지 않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었던 그런 내용들 또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 등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수입과 지출 내역 현황이 조금 전 우리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안보나 이런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도별 총액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해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아주 그런 식의 스탠스입니다.

또 한 가지, 해병대를 만기 전역했다는 후보자의 그 상세한 병적기록표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이게 얼마나 본인의 깊숙한

사생활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터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자료들 제출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 검증이나 감시를 피하려 한다면 장관이라는 그 자리 자체, 후보자가 지금 말으려고 하는 그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나 엄중함을 감안한다면 그 자리를 고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자료제출과 또 조금 전 모두말씀에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단추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제출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처의 공문서 또 회의를 했다면 그 회의자료, 회의록 자체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후보자님, 병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정희용 간사님과 이만희 위원님께서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저녁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기로는 일단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 자료제출 요구율이 100%에 해당한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에 특히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 카드 사용내역 이것도 소득원천징수서를 떼서 보면 그해 전통시장 사용이라든지 또 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현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정책질의가 상당히 해수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저의 정책 구상을 가다듬는 와중에 어떻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기존의 해수부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해수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정책들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충실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전재수 후보님, 후보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문체위 위원장이셨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20대 21대 22대 다, 뭐 한 5년 정도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위에서 활동하셨고요, 그렇지요?

후보자 지난 상임위 활동 이력을 보니까 농해수위 활동은 전혀 전무하네요, 그렇지요?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부장관 하시지 왜 해수부장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질문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바다 수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관련해서 토론회나 간담회 얼마나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부산 사람이고 저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입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예전 문제인 정부 시절에 2021년도에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해수부장관 하마평에 오르시다가 못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은 아마 그때 도자기 논란으로 낙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후보자님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마 낙마된 거 아닌가, 후보자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강명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후보자님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부산 출신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

○강명구 위원 부산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가 되신 건 맞으시네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강명구 위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자꾸 이런 얘기를 왜 질문으로 드리냐 하시면요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걸 업적 삼아 가지고 전재수 장관님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어쨌든 부산시장 나가시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따지고 보면 7~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고작 8개월 장관 하시겠다고 후보자께서 내년에 해수부를 버리고 부산시장 선

거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명구 위원 아니, 부산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명구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북극항로 시대가 오고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려면……

○강명구 위원 아니, 아니, 후보자님, 부산시장 출마하시겠어요,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두 가지 중에 그냥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고……

○강명구 위원 부산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출마하실…… 아니, 안 하시면 안 하신다, 할 생각도 있다 그 말씀 주시면 되지요, 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명구 위원 그러면 불출마 선언으로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는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

○강명구 위원 불출마 선언을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 위원님 세상일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강명구 위원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못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강명구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세상일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까?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질문할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는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왜냐하면요 후보자님, 7~8개월 장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해수부 이전 문제 건드리 놓고 해수부 공무원들은 그 이전 다 시켜 놓고 장관 출마하시면 그 공무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강명구 위원** 시간 30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지역 의원들께서도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종이나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외청을 두자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시다만 외청을 두는 것보다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세종에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데 어떤 역행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틀에서 훼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장관후보자님……

후보자님, 저를 좀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보고 할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100% 제출하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받아 놓고도 안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좌관들 통해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자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후보자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지출 내역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 이것을 아마 답변서로 제출해 주신 것을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이런 답변 자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하셨는데……

○**위원장 어기구** 충분히 의사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만희 위원** 전달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장 어기구** 후보자님, 그……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보내 주시고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셨다고

이해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100% 제출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출판회 같은 것들에 대한 지출과 수입 내역을 제출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만희 위원 제가 받은 것은 병적기록표는 이렇게 해 났어요. 이것 제공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을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용카드 내역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할 때 원천소득징수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합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만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원천징수서를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병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만희 위원 병적기록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병적기록부 이 부분도,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 경제정책수석실, 제2부속실에 근무를 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정부에 이렇게 세 번 근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임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은……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같은 부산 출신이어서?’라고 문금주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지역주의 타파, 겸손한 권력의 행사 이런 노무현 정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참모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문대림 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하셨던 것 아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가시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장관 하시다가 대

통령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시절에 쌓았던 정책,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문대림 위원 시간 지났고요, 타임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실적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장관의 전문성, 정무직 장관의 전문성은 종합적 정책 조정력 그리고 현장 소통력, 국회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 리더십이 장관의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재수 후보께서는 그 전문성에 나무랄 데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도 몇 번 주도했었고요, 법안도 5건이나 제출했었고 보니까 또 우리 해양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포럼 창립 멤버로서도 활동을 해 왔다.

그리고 아까 지역구의 특성상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해양·항만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를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량을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다만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후보자 명의 차량 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저의 부주의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교통법규 준수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 제가 분석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이 있어요. 이것은 반성에 또한 더 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반 내용 중에 상당 정도가, 12건의 위반 내용 중에 7건, 8건이 후보자는 서울에 있는데 위반은 부산에서 했어요.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제 명의로 된 차량이 서울·부산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저만 타는 차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직원들도 이용하고 집사람도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대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그리고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다. 본인이 없을 때 벌어진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가족·보좌진들까지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가 오후에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할 텐데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항선원 관련입니다. 외항선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는데, 내항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이게 공약으로 들어간 거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월 2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재 외항선원인 경우에 500만 원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항선원인 경우에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내항·외항 구분할 때가 아니다. 상당히 근로 여건이 힘듭니다. 연안 강국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요.

내항선 선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모델링 사업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문대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선 선원들의 경우에는 배가 너무 낡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안의 시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선원들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근로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문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500만 원이 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로…… 500만 원 이상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내항선원에 대해서는 지금 월 2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당국과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최고의 민원이고요. 반드시 관철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전재수 장관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안 받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서삼석 위원 제가 2018년에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당해 연도 7월 24일 날 농해수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해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발언의 몇 가지 대목을 짚어 보면 요즘 가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안군 천일염 생산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고 또 대한민국 섬 개수가 부처마다 다르다는 등 이런 난맥상을 지적했고 해상 교통 공영 문제를,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3대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첫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 지정되신 전재수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지적했던 내용이 본인 지역구에만 한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판단력 있게 속도감 있게 해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임명권자의 지명에 좀 포함돼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바다는 넓고 그 넓은 바다는 뜨겁고 건너가야 할 우리 장관은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날아다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뜨거운 바다에 대해서, 이 바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 또 이렇게 말씀 주신 후보자의 그 내용들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뜨거워지는 바다를 식히지 아니하면 해양 강국이 됐든 수산이 됐든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전반적으로……

○서삼석 위원 답답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서삼석 위원 답이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서삼석 위원 후보자의 의지만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범부처 간에 서로 협의, 협력, 공유, 최고 결정권자의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미 노정이 됐고 지명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넘어야 할 그런…… 해수부장관의 위치에서 K-해양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관점을 두고 있는 K-해양 못지않게 K-수산에 후보자가 취임하시면 동등하게 정책적·예산적·법률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 첫 회의에서도 제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복수차관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국가해양수산위원회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여러 수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수산업계가 이러다가

수산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일소될 수 있도록 저는 수산 전담 차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심의한 안건 6건을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 분야는 한 분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서삼석 위원 유념하시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해양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크린도 한번 해 보시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계부처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해양수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삼석 위원 ‘해양수산’ 하면 수산은 항상 뒷전이니까 해양 못지않게 수산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산 분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전재수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김선교 위원 평소에 해수부장관직을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나 목표 의식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사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해양수산과 관련한 공약 4개를 만들었는데요……

○김선교 위원 지금 어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어민 소득이 지금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6500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6500만 원 정도……

○김선교 위원 한 5500 정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 그렇습니까? 어떻든 김이라든지……

○김선교 위원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해수부 밑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산하기관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17개.

부산은 몇 개 기관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김선교 위원 부산이요. 부산 쪽에 몇 개 기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부산은 7개……

○김선교 위원 지금 장관후보자님 개인적으로 전문성 갖추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해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런데 왜 문체위에서만 그렇게 계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정무위도 4년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해양금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걸 누가 봐도 평소에 전문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내내년도에, 법안 낸 것을 보면 해사법원 설치라든가 또 그게 부산에 하겠다는 내용의 연계 법안이고 또 이재명표 지방분권의 인천에도 설치하고 또 부산에도 모두 설치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해수부장관이 되면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 내실 겁니까, 인천에 또 설치해야 한다고 내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공약이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남단 동남권에 새로운 서울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부산에 한정된 공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차원에서 이 공약이 기획되고 제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다면 불과 대선 직전 5월에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용 북극항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해수부장관 적임자라는, 그래서 해수부장관후보자로 된 겁니까,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말씀……

위원님, 북극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바닷길·뱃길이 열립니다. 문명사적인 변화입니다. 이 문명사적 변화를 잘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주도하려면 거점이 있어야 되고 그 거점을 부산·울산·경남 더 넓게는 여수·광양·포항·거제도까지 포괄을 해 가지고……

○김선교 위원 여러 가지, 북극항로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몇 가지만 드릴게요.

북극항로 개척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엄청난 유라시아 물류혁명의 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선도하지 못하면 중국·일본·러시아·미국에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교 위원** 단독 진출보다 다국적 협력 및 기술력, 후보자님이 짧게 좀 답변을 해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다국적 협력 및 기술력을 후보자님이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연합을 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북극항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이미 경쟁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반도……

○**김선교 위원** 여름은 이제……

후보자님, 시간이 없어서요.

북극항로 개척은 실제 몇 개월 운영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현재 7·8·9·10월 달 운항이 되고 있는데……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물동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계절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 4개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얼음이 녹을 거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2030년경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20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김선교 위원** 그러면 투자가 무모해지지 않아요, 4개월 하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얼음이 녹고 있고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김선교 위원** 또 항로의 불안전성도 있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기항지가 없기 때문에 과연 경제적 가치가 있냐, 상업 운항이 가능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이 준비를 놓치게 된다면 거대한 유라시아 물류혁명에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북극항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김선교 위원**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전재수 후보자님, 해수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송옥주 위원** 일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께서 농해수위 활동을 안 하셔서 전문성이 떨어

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인정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는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지 않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도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동안 아주 입법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잘하셨습니다. 한 230건 정도가 넘는 입법·대표발의를 하셨고요. 이 가운데 상임위 활동은 아니긴 하지만 또 해수부와 관련된 대표발의 법안도 있으시고 또 일부 공동발의 법안까지 해서 다수의 입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법안들을 좀 보니까 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도 내셨고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법안도 내시고 또 선원법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바다를 위한 또 해수부를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를 하셨어요. 스마트 선원 양성과 한국 선원의 병역 문제를 다룬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고요. 또 남해안 관광진흥 관련된, 해안 관광과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를 하시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런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해수부장관 역할을 하시는 데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정책 발굴들을 통해서 국민 생활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산에서 제가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부산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떼놓고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전체 부가가치 생산액의 30%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송옥주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앞으로 해수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부산 얘기만 자꾸 하시면 다른 지역 우리 위원님들께서 섭하세요.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부산의 국회의원이지 부산의 해양수산부장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할 것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북극항로 권역을 자꾸만 부산 또는 조금 더 넓히면 부산·울산·경남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수·광양·부산·울산·경남을 거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이 권역이 북극항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일차적인 수혜는……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이 답변이 기시면 제가 질문시간이 줄어드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죄송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모두발언을 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쪽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어민과 어촌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이 고수온 피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수온이 보니까 주로 하삼도(下三道) 중심으로다가 고수온 대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경기도 출신이에요. 경기도는 마을어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어업과 관련된 부분은 고수온 피해 대책에 집계도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그런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실제로 법상 마을어업 수산물도 양식수산물과 달리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화성에 있는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극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수면어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어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경기 바다의 바지락 생산이 주 산업인데 연간 6000t 이 넘는 부분들이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80% 넘게 생산량이 줄었고요. 경기도 화성시에는 9개 어촌계 2500여 어가들이 있는데 연간 50억 원 가까이 소득원이 상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어촌 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위해서 제도개선이나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요. 재해보험 품목에 이 바지락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품목이 한 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35개까지 늘릴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어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서천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고맙습니다.

○서천호 위원 우선 전문성 관련해서 물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인터뷰하신 내용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맞는 발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조로 장관직을 만약 취임하시더라도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챗GPT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논란이 많았던 장관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중에 해수부장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도 김성진 장관님 아시지요? 김성진, 혹시 모르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잘 모릅니다.

○서천호 위원 많은 부처를 경험했습니다. 했는데 해수부장관 오기 전 직책이 중소기업청장을 하셨고 오로지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수부장관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 하면 현장의 경험성과 정책적인 능력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입법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정책부서에 근무도 하셨고 또 지역에서도 신망도 많으시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수산업계 현장 상황 부분은 경험할 그런 시간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장관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소통해서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처음 지금 논의되는 사안이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서천호 위원 아닙니다. 2000년도에 DJ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시절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전하려고 했고 시민들도 상당히 희망을 했던 사안인데 그 당시 해수부장관을 하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많은 시민과의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무산이 됐던 사안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주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서천호 위원 간단하게 북극항로 그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북극항로가 열렸……

○서천호 위원 그 외에, 북극항로 아까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자면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였지요.

○서천호 위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해서 적극적으로 내세웠지만 DJ 정부 때부터 주장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북극항로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 이상국 지부장님 와 계시나요? 안 오셨습니까? 어쨌든 공무원노조나 퇴직자회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한 86%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어떤 사유로 반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제 해수부가 세종으로 내려간 지 12년이 돼 가지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또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수부 직원들의 개인 생활의 불편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 그것도 있고 또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라든지 또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역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정부부처 이전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측면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후보자님께서서는 기회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역적 또 사회적 어느 정도 합의가 전제가 된 이후에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극항로라고 하는 유라시아 물류 혁명의 거대한 파고가 현실화되고 있고 더더구나 2000년 당시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성장 엔진 하나만 달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를 하면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서울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든, 즉 해양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거점을 부산으로 삼되 그 권역을 여수 항만, 저기 포항까지 해 가지고 한반도 남단에 서울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들겠다, 다극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짧고 굵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전재수 후보자님,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환영하기도 하고요 든든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법 제65조의2 또 인사청문회법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도덕성 기준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내용, 제출된 자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

자가 인사검증 기준에 크게 어긋나거나 크게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장전입을 비롯해서 7개의 인사검증 기준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도 확신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추후에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라든지 검증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점을 소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자세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후보자님 모두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늘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입각해서 무겁게 생각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가능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한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지명받으시고 그동안 고심하셨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새로운 바닷길, 뱃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선도한다면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선산업, 조선 기자재, 해운 기자재 그리고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동아대, 동명대에 조선해양 관련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이 직선거리로 4km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전후방 산업이 연계가 되고 거기에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사실상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여기에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 본사들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은행을 제대로 믹스시켜 낸다면 새로운 성장 엔진, 새로운 수도권권을 대한민국 남단에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좋습니다. 요지는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 만큼 그걸 통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지금 북극항로 개척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해수부 이전, HMM의 부산 이전 등 또 말씀하셨던 행정·산업·사법·금융 기관의 집적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그런 게 국가 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께서는 바다를 떼어 놓고 정치를 할 수 없는 부산에서 생활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그런 분야에 대한 열정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수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북극항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간이 짧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본격적으로 운항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범운항을 좀 적기에 제대로 해 나가야 우리가 본격 운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운항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이미 2016년도에, 2020년도 까지인가요, 이미 다섯 차례 시범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컨테이너를 싣지 않고 빈 배를 가지고 북극항로를 시범운항을 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는 무르만스크에서 오른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실상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7년 전부터 일본 동쪽에 있는 기업을 일본 서쪽으로 옮기면서, 물론 지진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바닷길, 뱃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금 일본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저도 시범운항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시범운항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시도록 사전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항, 친환경 수소복합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할 이병진입니다.

장관님, 3전 4기만에 국회의원 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도 4전 5기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양수산부장관에 발탁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든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손톱만큼이라도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수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 역량도 중요하지만 철학 특히 소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 소신. 저는 후보자의 얼굴을 보고 뵈 때마다 그 소신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업무, 지난 윤석열 정부에 보면 말이지요, 보고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전면적으로 삭제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독도는 항상 기록되고 명기돼야 될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국토의 일부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 주권을 시험받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바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있다, 없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말이지요 첫 번째, 해양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입니다. 이 전략적 기회를 살려 내는 뭇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 줄속 이전이라든지 이사비만 날려, 이런 가벼운 지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올곧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해외 선진국들 사례를 통해서 행정 기능 이전에 따른 몇 가지의 장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해양 행정 기능의 중앙에서의 분리에 따른, 지방 이전에 따른 눈에 띄는 성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도 해양청이 있습니다. 10년간 인력 이탈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지요. 해양청 예산도 한 314%나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또 퇴직자가 그만큼 나옵니다. 작년만 해도 12.3%의 공석으로 인력이 공백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청 본부의 기능을 워싱턴 D.C.에 일부 유지하면서, 게이트웨이 오피스(Gateway Office)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오피스, 이걸 각 주의 항만에 분산 설치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효율성 향상이 됐고 지역과 항만산업에 연계된 일자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항만 관리·운영 권한을 주정부에서 민간에 이양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사례를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멜버른항이라고 있는데 행정 기능을 주정부로 이양하고 또 민간기업의 장기임대를 통해서 컨테이너 물동량도 339만TEU로 증가시키는 역대 최고의 기록도 냈다는 이런 보고서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부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고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발전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동하면서 또 나아가서 아까 수도권 일극 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산업의 부산 중심 일극주의 강화 또한 고민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 보충질의시간에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후보자님 지명 보면서 왜 이분이 해수부장관후보자일까. 우리 위원회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이걸 짐작하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농림부장관은 유임되고 해수부장관님은, 사실 문체부장관후보자 같으면 제가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외출장도 파리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한쪽으로는 조금 뛰 내 부산 사람이니까 바다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장관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우리 역대 장관님들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11개월 정도입니다, 11개월. 아마 후보자님은 좀 더 짧아지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지난 문재인 정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들은 모두 전문가들이 오셨어요. 김영춘 장관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분이 해수부장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 보면서 왜 이렇게 좀 더 솔직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좀 설득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분이 10년의정생활하면서 해수부 해양 관련된 토론회 한 두세 번 했다는 것하고 1건도 본회의 통과 못 했지만 대표발의 한 서너 건 했다는 법안 냈다는 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양수산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셨다고 강변하는 그 말씀들은…… 제가 그래서 그 내용 다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이나 토론회 내용도.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 뭐가 그렇게 관계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해양 분야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위협받는 각종 우리 해양 주권의 문제도 그렇지요 그리고 바다에서의 어민이나 선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양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작년에 해상사고로……

○이만희 위원 예.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육십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맞습니다. 백육십두 분이고 이번이 지난 7~8년 이내에 가장 많습니다. 이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또 막대한 자본이 동원돼야 되는 해운업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신 북극항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가가 와도 부족하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우리 후

보자가 해양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는 없다는 얘가지요, 우리 해수부장관의 자리가.

그러면 왜 이분이 해수부장관으로 왔을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에게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분이신데, 과학 자체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왜 해수부장관으로 지명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들어 봐 봐요. 들어 보세요.

이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부산 시민들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때 후보자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 수산업의 안전 분야가 얼마나 위협을 받았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관련된 책자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장관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해양생태계와 또 안전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을 지켜내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이만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것. 이 책자 만드는 데 48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48억 넣은 것 가지고, 당연히 국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해수부의 당연한 업무를 가지고 절차를 안 지켰다고 보도자료까지 내 가면서 힐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요?

○이만희 위원 예. 기억 못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글썄, 그런……

○이만희 위원 글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런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적은 없는 것으로……

○이만희 위원 이런 책자 하나 만드는 데까지도 절차를 따지고 예산을 따지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들이, 해수부라는 큰 부처를 옮겨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계획과 어떤 예산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오후 질의에 제가 다시 또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짧게……

○위원장 어기구 예, 짧게 답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만희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이만희 위원**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 없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 줬던 말씀들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제가 내는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을 통해서 실현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이 부분 공약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없다면 이런 공약을 설계해서 이 엄청난 해양수산부를 꼭 때 내 가지고 부산으로 옮기겠다라는 이런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공약을 제가 설계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요.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수산물의 안전 또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를 지키자는 그런 진심 어린 저의 발언이었고 생각이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우선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전문성 문제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파악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후보자께서 충분하게 이것들을,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동안의 우리 관행에 의한 해수부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해양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색다른 관점으로 해수부 업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보면요,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혁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눈에 띄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중에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선 감축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선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선 지원금 같은 경우도 현장의 요구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특히 최근 3년간의 수익률을 가지고 폐업 지원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고기가 안 잡혀 가지고 3년, 5년 못 잡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이 199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근 30년이 넘는 동안 이것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과세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과세 대상인데 해수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민들한테도 ‘이것은 기타소득이고 과세 대상입니다’라는 안내가

나갔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이 부분은 기타소득이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안 냈습니다. 당신들 이것과 관련해서 7년 동안 세금 안 냈으니까 2018년도부터 계산해서 가산금까지 부과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 들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국세청이 각 지자체를 통해서 2020년 이후 감척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의에 직면하니까 이게 현재 지역 국세청에서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반면에 해수부 공무원들은 감척 설명회를 열었을 때 세금은 안 내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안 냈는데 왜 그것 걱정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어민들을 나무랐다는 겁니다.

현장의 어민들 입장에서는 해수부의 태도가 다르고 국세청의 태도가 다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해수부가 이런 식으로 어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알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척 지원금 해 가지고 세금 걷는 것이 전부 다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 거두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23년도 걸으면 167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4년도 걸으면 263억 원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와서, 30년 동안 사각지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 핑크가 나니까 이거라도 세원 확보를 해서 세수 좀 메꿔 보자라는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기타소득세 세율 8.8%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해수부 차원에서 기재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국세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해수부가 기재부 대상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시고. 현장의 어민들이 지금 지원금 받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큰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무사를 고용해 가지고 경비처리를 다 해 가지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대응을……

○임미애 위원 작은 배가 문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작은 배. 대응할 수 없는, 잘 모르고 계시던 어민들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국세청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민들의 시름을 달래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어기구 어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율의 조경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후보자님, 해수부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지 단계별 일정과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올 연말까지, 월세살이 하는 임시청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부산일보 뒤쪽에 아이엠빌딩을 주 청사, 주 임시청사로 쓰고 그다음에 여러 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부족해서 길 건너 맞은편 협성빌딩 6개 층 정도를 쓰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부산을 지역구로 둔 본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게 헌법에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국가균형발전과 부산·경남 지역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는 해수부 이전으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부산·경남 일대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또는 수도권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희들이 통계 수치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천차만별이라, 다만 이것이 좁게는 부산인데 북극항로…… 권역으로 나누자면 부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수, 광양, 울산, 부산, 거제도 거쳐서 포항까지 포괄되는 지역에 경제·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허브 해양 도시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적인 그런 시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이어서 이것이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조경태 위원 이 부분도 여야가 함께 협력해서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저도 대표발의를 해 났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의 몇몇 의원님들께서 북극항로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병합심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함께 해 가지고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 보완 장치들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 반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다면, 해수부를 연내에 이전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남은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면서 정부가 국회나 해당 기관에 건의하거나 주문할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은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산으로 오다 보니까 수산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부가 단순히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 가지고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해수부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도와주신다면 해수부 이전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방금 수산 쪽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에서 어촌계 가운데…… 어민이 모여 있는 단체가 어촌계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전국에서 어촌계가 가장 큰 데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제 지역구에 두고 있는 다대어촌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촌계거든요. 그게 참 특이한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정책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저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민들을 위한 어민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촌계는 수협이 산하조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장, 통장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촌계의 어촌계장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제 지역구에도 어촌계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촌 소멸 이런 것을 면키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정책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으로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장관님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고맙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바다가 없는 충북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걸 조금 이따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조정대 위원님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 말씀 주셨는데 준비 잘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충청 지역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당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있잖아요.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이것을 군산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6개월 만에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열두 번 회의도 하고, 저희가 추진 일정 좀 보니까 여기는 해수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청이지만 6개월 내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해수부 직원 의견 수렴이라든가…… 크게 두렵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당시 보니까 직원 숙소 11채 전세보증금 8억 8000만 원도 세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주여건 관련해 가지고 우려들이 많은데 직원 숙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부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외청이 이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갔던 부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해수부 공직자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챙겨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빠르게 예산 부처나 우리 여야 의원님들한테까지도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LH하고 저희가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택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세세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되는 대로 자료도 좀 공유해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북극항로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쇄빙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우리나라에 쇄빙선이 몇 척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한 척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라온호.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한 척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한 척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게 남극, 북극 연구선으로 같이 쓰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차세대 쇄빙선 준비 진행사항 보고받으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예산이 한 4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호선 위원 그게 언제 인도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임호선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7월 1일 날 됐다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한화오션으로 들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한화오션으로.

그런데 인도 예정 기간을 보니까 30년이 되어야지 인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거지만 거기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이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게 장관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세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하고요.

왜 필요한지 또 여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외국보다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뒤지지 않게끔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북극항로에 대해서 늦은 만큼 더 빠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저희 충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해수부가 사실은 96년도에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인가 잠시 부처가 통합이 됐다 2013년도인가에 해수부가 다시 또 독립 부처가 됐잖아요.

그런데 해수부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사님도 그러시고 피해 사례로 꼭 이것 예산을 담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충주호라든지 대청호라든지, 저희 지역구만 해도 초평호·백곡호, 사실 내수면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해수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지원이나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셔 가지고, 특히 내수면 같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어장도 변하고 있고 어종도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어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서 넓은 어장을 가지고, 좋은 어장을 가지고 많은 고기들을 잡아 왔다면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그런 한계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수면어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해수부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끌어올려서라도 내수면어업에 대한 신경과 관심을 더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해서 각종 규제는 엄청 심하게 받는 반면에 해수부에서 우리 충북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하는 평가라는 점을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장관이 된다면 바다가 없는 내륙에 대해서 해수부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부산을 대표하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구설이나 이런 것 전혀 오르내리지 않고 자기 관리 잘하셔서 영예를 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전남 도민들의 관심이 좀 많고 말씀이 많아서 제가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전국 어가 인구가 한 8만 4000여 분 됩니다. 그중에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우리 전남입니다. 전남에 한 3만 3000여 분 살아서 전체 어가 인구의 38.4%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수협 조합원이 약 15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인 5만여 분이 우리 전남에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작년 기준 보면 186만t으로 전국의 전체 어업 생산량 313만t의 한 60% 가까이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도 우리 여수·광양항입니다. 물론 컨테이너 부분은 과거에 두 포트 해 갖고 부산항과 양대 산맥이었습니다만 자꾸 비중이 축소돼서 현재는 부산의 10분의 1, 인천의 3분의 1로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환적이 아닌 수출입 물동량만 치게 되면 우리 여수·광양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관광 부분도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 1300만 이상이 방문하는 남해안 남중권이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전남의 많은 섬들, 전국에 섬들이 한 3300여 개 되는데 그중 64%인 한 2100여 개가 우리 전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유인도와 관련해서는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남으로서는 해수부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우리

전남의 서남해안 쪽이 가장 많은 허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수부가 세종시에서 바닷가로 옮기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하지만 같은 값이면 전남으로 왔으면 좋을 텐데 부산으로 가서 전남 주민들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운송과 해운항만의 중심임은 분명한데 나머지 수산, 해수부의 분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산이라든지 해양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양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남이 중심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차관께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전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85.87%로 전국에서 압도적 1위로 지지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수산업이라든지 해양, 우리 수산 업무 상당 부분의 중심지인 전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복안이 있으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우리나라 수산의 사실상 70% 정도는 전남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전남 지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도 사실은 항만 권역별로 보자면 이게 부산 그 근처가 해운·항만·물류·조선 인프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오기는 합시다만 북극항로의 권역을 보자면 여수·광양항도 들어갑니다. 여수·광양에서 시작해서 포항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 그래서요, 현상 말씀하지 말고 이와 관련해서 앞에 제2차관 신설도 나왔습시다마는 전남 수산인들 사이에서는 과거처럼 해수청을 다시 분리해서 전남으로 보내 주라. 어차피 부산은 해양수산 분야는 좀 멀지 않냐, 원양어선 중심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수산업의 중심지인 전남으로 해수청 신설해서 보내 달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 주신 말씀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별도로 하면 안 돼. 다 해야 돼.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수부장관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조승환 위원** 먼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부산 지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정책적으로는 어떤 수도권,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참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정말 걱정도 같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정부 부처를 하나를 떼 가지고서 단독으로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험입니다, 이것은 정부 조직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와 실적으로 봐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신속한 실적과 성과보다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해양수산부가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가지고 부산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중앙부처의 기능을 완벽하게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어떤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님 말씀해 봐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조금 전에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해수부가 사실은 행정수도라고 이야기하는 세종을 떠나 가지고 해수부만 똑 떼 내 가지고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수부에 부여된 특수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승환 위원**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지금 특수임무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해운과 항만에 치중돼 있다. 지금 계속 북극항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인식 자체가 해양수산부가 현장 중심 집행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단 말이지요. 지금도 현장 중심 집행 업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조승환 위원** 그렇습니다. 해운·항만만 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 집행 업무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영토, 해양 주권 또 수산 문제, 해양 환경 문제, 해양 문화·관광·레저 또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장 중심의 집행기관이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발언 중에서 국가기관들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딱 하나, 해양수산부만은 부산에 옮기겠다. 지금도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부처의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해수부가 타 부처의 정책 협의가 필요 없는 부처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필요합니다.

○**조승환 위원** 이것은 그래서 그 기능들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인호 위원장 발언인데 ‘해수부가 조선기자재 기능을 가지고 오면 부울경의 조선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다’, 후보자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습시다마는 해수부가 조선기자재 기능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확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산업부의 열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산업부

내의 조선해양플랜트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조승환 위원** 맞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조선기자재 산업 지원 기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선해양플랜트과 기능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해수부 본연의 중앙정부의 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아까 언급했던 분야의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 기능적으로는 조선해양플랜트의 실질 산업 기능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적 차원에서 보면 2차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서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해양위원회가 전체적인 해양 관련, 해양이라는 것은 다 떨어진 업무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직원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비 문제라든지 또 아파트 특별공급, 저는 지금 이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계속 임용되는 공무원들까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런 부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수부에 있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해수부가 연말이 되면 직원 출장비를 못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뒤에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산으로 이전되어 갔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점들이 없겠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세심하게, 해양수산부의 기능, 역할, 직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이렇게 이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전임 장관이신 조승환 위원님 의견 잘 유념해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전종덕 위원** 우리 장관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조치를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중국에서도 보복관세 125%를 부과하면서 사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7일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맞서서 자국 수산물 전폭 지원, 수입 수산물 규제 강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상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쌀 수입 문제라든지 소고기 수입 문제에는 관심이 있는데 의외로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좀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이 발행돼서 수산물 수출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최대 3.7%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4월 달에 발효된 보편관세 10%에 근거해서도 이렇게 되는데 25%까지 확대되게 되면 상당히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 효자 상품 아닙니까? 미국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분기 때는 수출이 21.7%가 증가했었는데 보편관세가 되고 나서 4월 이후에는 13.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세가 보편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전략 품목인 어묵이나 굴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8%, 4.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무역관세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분야의 대미 수출 전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 6월 달에 해양수산부와 수출기업 간의 간담회라든지 또 수출 지원 기관 사이의 간담회를 한 차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편관세가 현실화되게 되면 이런 채널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관세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의 피해 또는 수출이 좀 줄지 않도록 정책……

○**전종덕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중점 과제로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 이야기를 강조하신 만큼 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최근 중국에서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가, 91건이 통관 거부됐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다라고 하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전종덕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총 4건의 통관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분석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출 전략 관련해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전재수 후보님께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장관이 되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단편적으로는 북극항로지만 대한민국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전종덕 위원** 그만큼 또 중요하게 제기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 북극이사회에서 옵저버(observer)로 우리나라가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 지금 북극항로 연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앞에서도 많이 밝히셨는데 굉장히 희망적 기대에 좀 치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의지와 희망과는 달리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중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획득하려면 그 이상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몇 건이나 연구용역을 한지 아세요, 이 개발을 위해서? 열세 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극 다산기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다산기지가 북극항로 개발의 전략적 거점인데 지난 20년 동안 지원된 예산이, 20년 동안 지원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 2억 9000 수준이에요. 이래 가지고, 장밋빛 희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연구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로 개척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선도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문금주 위원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해수부장관으로 힘 있는 3선 의원인 전재수 장관님이 지명되시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해수부 공직자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마 해수부 공직자분들은 저를 상당히 밍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이분들이 당장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말끔히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

만 최선을 다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대 해수부장관 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 해양수산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잘하신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전문성이 있었던 장관님들도 보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삼석 위원 여기 조 장관님은 빼요.

○문금주 위원 예, 여기 조 장관님 빼놓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수부가 보면 기재부하고 관련 속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힘 있는 장관이, 그런 면에서 힘 있는 장관이 오신 게 저는 잘됐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대통령님하고 독대도 하시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해양수산부는 해양하고 수산인데 아시다시피 전라남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산업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과 조직·인사 구조가 영남과 해양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이쪽 호남 쪽에는 있다, 이런 부분들 아시고 계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보면 매머드급 대통령 공약도 상당수 영남권 해운 물류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조직도 보면 국장급 지방해양수산청은 영남에 두 곳, 네 곳 중 두 곳이 영남권에 치중·편중되어 있고 해수부 인사도 보면 고위공직자 43%가 영남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산정책도 영남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생각하면서 수산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도 또 여러 단체에서도 요구했던 내수면어업과 신설하는 부분 또 복수차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주시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디가 소외받는다, 어디로 편중됐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머리를 함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복수차관제는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해양수산부가 정말로…… 해양으로 쏠린다 또는 수산이 소외받는다 또 그 반대의 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수차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또 여쭙보겠습니다.

김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 효자 품목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김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화되고 고령화되고 전문기관이 부재해서 올 1월에도 물김이 대량으로 폐기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태, 또 물김 저장기술이 부존재해서 그런 문제 또 김 종자용 굴패각이 전량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대안으로 가칭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치와 같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 종자 배양을 위한 굴패각도 연구개발 좀 해서 국산화하는 데 해수부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해수부 내에서 김산업뿐만이 아니고 수산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 설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해수부 부산 이전이 줄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고 충분한 로드맵하에서 진행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내년 지방선거용이거나 전재수 후보자님의 부산시장 출마용 해수부 부산 이전이 되면 안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정희용 위원 출마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해수부를 이전하고……

○정희용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전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북극항로 관련해 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극항로 대비 국내 항만별 화물 및 물류 특성을 고려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북극항로 활성화는 곧 대한민국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다라고 생

각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단일 항만이 아니라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해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항 하역 능력 숫자까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물동량?

그런데 2019년 이후에 부산항 물동량이 계속 증가해서 지난해는 물동량이 하역 능력 대비해서 640만t을 넘었습니다. 부족한 거지요.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만으로는 증가하는 물동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저는 동해권역 주요 항만, 울산항·포항항은 하역 능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동량의 여유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해권역 항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전에,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도 제가 북극항로 항만 권역을 여수·광양에서부터 포항까지 아우르게 될 거다, 직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거다, 그러려면 항만이 그 역할에 맞는 항만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울산항에서 포항 영일만항으로 가는 동해안 주변이 추가적으로 항만 개발 여력이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라는 첨단 IT·전자산업으로 특화된 구미 또 지금 대구경북신공항이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신공항 건설 또 철도망이 촘촘해지면서 물류·교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구시·김천시, 저희 고령·성주·칠곡을 포함한 내륙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그래서 포항 영일만항은 해양 내륙을 연결해서 북극항로 시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서는 포항 영일만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구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서 지금 제가 해수부에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이게 물류에너지 또 국가기간산업에 좀 특화된 항만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로의 항만 권역에 충분히 포함이 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포항 영일만항도 상당히 좀 발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용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연구용역 북극항로 관련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앞선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해외에 있는 대형 선사들의 투자 유치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단일항으로 제한하지 말고, 용역할 때 제한하지 말고 포항항·울산항·부산항 등 항만별 배후 산업 여건과 기능, 화물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고려해야 되고 동해안 권역 항만을 연결하는 일명 코리아 멀티포트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에즈 운하라든지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교통 체증이라고 그러지요. 체증이 엄청 걸리고, 거기는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또 해적이라든지 반군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한번 잼이 걸리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99.7%가 배로 다 실어 나르는데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북극항로가 새로운 항로로서 중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수·광양·울산·포항·영일만까지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여기의 항만들을 그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연구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부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조선·해운·항만 물류의 베이스 인프라가 다른 항만보다 월등하게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할 정도의 인프라를 깔려면 최소 3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부산항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용 위원** 코리아 멀티 포트.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멀티 포트 제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오전 주질의가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청문회 과정을 유튜브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장관후보자 당당하게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저는 직원들의, 공무원 직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바다가 부산·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백령도·연평도부터 해서 경기도 바다 또 인천 앞바다, 우리 충남도 해안선이 상당히 길니다. 이쪽 호남도 저쪽 영남도 있지만 충남·경기도 바다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우리 당진에 충남을 대표하는 항만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북극항로도 중요하지만 충남 항만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장관님, 오늘 다섯 가지 큰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복수차관제 2차관제 도입도 필요하고 또 어촌계장 수당도 줘야 되고 내수면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쭉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들이 전부 예산하고 결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국가 전체 예산의 1% 남짓 되는 한 6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1%, 7조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저는 북극항로부터 이어서 우리나라 K-수산, K-해양을 장관님 후보자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예산이 배는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해수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내가 3선 의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증액하겠다, 이 한 말씀만 우리 국민들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흡족해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과 예산 당국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어도 전재수라는 사람이 장관을 했을 때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R&D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1조 시대가 오긴 할 텐데 R&D 예산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챙기면서 조금 더 각별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고민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산이 없는 공약은 다 헛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5시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간사님?

○정희용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15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에서 이원택 간사님이 질의를 못 했는데 5분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후보자님, 해수부장관 내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이원택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쪽이 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해운 쪽 과제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우리나라 선박의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좀 빠른 속도로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탄소국경조정분담금처럼 벌금이랄까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항 상선의 경우에는 친환경선박 전환율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8%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IMO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고 단계별로 탄소 배출하는 것만큼 부담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시간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중차대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수부에서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경주해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해운 경쟁력에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새로운 항로인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대응력을 갖추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해운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경쟁력은 약화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2030년, 40년, 50년을 놓고 봤을 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려면 아무래도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좀 늘려서 친환경 선박의 투자를 확대해 줘야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투자뿐만 아니고 보증 사업도 좀 대대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 선박 수요 대응을 못 할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해운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 축이 미래항로인 북극항로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써 좀 명백한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운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선박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에너지를 운반하는 선박들, 그 핵심 에너지 국적 선박을 활용하는 국적 선박 활용률을 좀 확대해야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것 잘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국적 선박을 확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70%까지 법제화하고 의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해운사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물론 결국은 관건은 예산의 문제일 텐데 기왕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의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기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금 앞으로 앞당겨 가지고 예산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이걸 예산 문제도 있지만 비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핵심 에너지를 운송하는 선박을 국내 선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주나요?

○**위원장 어기구** 안 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그래서 그 전략물자하고 핵심 에너지 수송에 대한, 이걸 해수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라고요.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하신 전국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장인 이상국 참고인께서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참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상국** 반갑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참고인을 신청하신 서천호 위원님과 전종덕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서천호 위원** 후보자님, 참고인 진술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2017년도입니다, 문재인 후보캠프 교육특보로 계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때 여러 교육 관련 정책을 또 수립도 하시고 발표도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특목고, 자사고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을 일반고로 전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제도 하시고 언론에 공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정작, 그게 2017년도예요. 그런데 2019년도, 22년도를 보면 두 분

의 자제가 특목고에 입학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서천호 위원 사실관계가 틀립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맞고요.

○서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정치인들이 내 아이는 예외다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낙마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과 실천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또 장관으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좀……

제가 아이들, 딸이 둘인데요.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 지역구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사립학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산국제고등학교인데 여기가 공립학교입니다. 부산시에서 설립한 공립학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17년도에 말씀하신 걸 보면 공사립을 불문하고 특목고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화해서 학교의 서열화를 없애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말정산 세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걸 죽 토대로 해서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인적공제가 자녀 외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자녀 외에……

○서천호 위원 부모님, 장모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양가 부모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기본공제에다가 경로우대 공제까지 합쳐서 연 750만 원씩 공제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후보자와 부모님·장모님 주소는 지금 별개 주소로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소득세법상에 부양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그다음 나이, 물론 특별한 장애인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만 또 동거 요건, 주민등록법상 동거, 이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다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강원도 인제에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다달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후보자님 장모님에 대한 생활비 송금 등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전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요.

○서천호 위원 지금 후보자님 답변하고 정 배치되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글썄,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통해서, 금융기관 간 이체를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지금 이날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니, 우리 받은 자료가 그래요. 생활비 송금 계좌이체 내역이 일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매달 생활비를 송금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세금 탈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마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고.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다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천호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정해진 날짜에 매달 일정 금액씩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

○서천호 위원 다시 자료제출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보충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서천호 위원 이상국 지부장님,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현직 노동조합에서도 반대 표명을 했고 또 퇴직자들도 반대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 표명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상국 해수부 부산 이전을 정책적인 반대보다는 저희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나 처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 이전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잘됐니 못됐니 이것보다는 저희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입장입니다.

○서천호 위원 절차적으로 내부 소통 과정이 전혀 누락이 됐나?

○참고인 이상국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 절차 부분이 만약 보완이 되면 이전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참고인 이상국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지나고 나면 어쨌든 직원들이 부산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쉽게 이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삶의 터전을 전부 다 버리고 다른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주거시설이나 또 교통비나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배우자 주거, 배우자 직장 관련된 것도 이 모든 게 해결되면 저희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천호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들었습니다.

○서천호 위원 어쨌든 대외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공감대 확산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명되시면 그 절차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유념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후보자님, 앞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지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해수부 이전 추진하는 것,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무원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해수부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이, 또 다른 지부장님이 계시는데요. 지부장님이 삭발과 단식하고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5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후보자로서의 역할에 맞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청문회가 끝나면 가는 게 맞겠다. 사실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도 묻고 있고……

○**전종덕 위원** 청문회 끝나고 나면 한번 방문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오늘 참고인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서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나마 이야기를 듣고 주문사항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참고인 이상국** 1998년도에 입사해서 약 27년 정도 됩니다.

○**전종덕 위원** 27년 근무하시면서 이전을 한 두 번 하셨겠네요?

○**참고인 이상국** 예.

○**전종덕 위원** 지금 공무원으로서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참고인 이상국** 갑작스러운 해수부 이전으로 많은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의욕도 많이 상실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겨야 한다는 현실이 가장 부담이 큼니다.

○**전종덕 위원** 어떤 자료 보니까, 신문보도 보니까 ‘공무원들의 86.1%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이던데요. 지부장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이시겠네요?

○**참고인 이상국**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단계적 검토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그 입장이십니까?

○**참고인 이상국** 예. 단계적 이전은 저희가 국회 대응이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서는 잔류를 하고 정책 부서나 다른 현장 부서만 일단 옮기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어쨌든 해수부 직원들도 많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전체 정책도 상당히 빠르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런 공무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주 여건이나 주거·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시·LH 등 이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파악은 안 하셨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대략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나오신 참고인의 말씀도 그렇고 어쨌든 공무원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충분한 사전 협의 그리고 논의 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사전에 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진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제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가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전종덕 위원 후보자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의 주체들 아닙니까? 가서 해수부 업무를 또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집행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조와 충분한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이 또 그 대책, 이주 대책을 포함한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노조와 공식 논의 기구를 통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전과 관련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저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응당 마땅하다 이런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된다면 넓고 또 깊게 소통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서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의견을 정말로 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참고인께서 맨 처음 발언을 하실 때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께서 ‘노조와 공식 기구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하시겠다’, 제가 이렇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공식 기구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더 잘될 수 있는 그 어떤 형식이라도……

○전종덕 위원 노사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이전하는 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직원들의 불안도 해소되고 소통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인께서 답변 들으셨는데 혹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상국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상호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장관님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관 임명되고 나면 저희 노사협의회를 같이 진행을 하고 함께, 지금 현재 이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짧게 한말씀만 올리자면 사실은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내려갑니다. 해양수산부 공직자분들께서 정말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북극항로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데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지금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장관님한테 부산 이전 관련된 작성 문서나 또 회의 개최 이런 등등에 대한, 회의록 등에 대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한 번도 회의한 적도 없고 관련 문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엠빌딩이라든지 협성빌딩이라든지 가계약까지 이미 한 것처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주체가 돼서 이걸 했고 관련 예산이 없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있을 것 같은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만희 위원 답변은 한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좀 말씀……

○이만희 위원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작성된 문서나 또 관련 회의를, 작성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전추진단이 꾸려졌고요.

○이만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장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했으면 최소한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은 일단 한 장도 없고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왔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전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주거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위가 있고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언제 했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결정됐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 사실 다 잘 아실 테고요. 그렇지요? 당시 후보자께서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해수부 이전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성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 또한 이전 얘기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계신데 지역 간의 형평성의 원칙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하나 여쭙보겠습니다.

나주에 기후에너지부 설치해 달라는, 김영록 전남지사님께서 최근 전남 나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계세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국가전략이라는 취지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를 나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보신……

○강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전략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님께서 특수임무를 받고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그러니까요……

○강명구 위원 그러면 전남지사께서 주장하는 이 부분도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요, 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강명구 위원 그렇지 않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광주로의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광주시는 현재 문체부 산하기관인 서울예술단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의처럼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본부 자체를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위원님,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명구 위원 문체부가 광주로 가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고 똑같은 얘기인 거지요. 그게 다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 그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강명구 위원 아니, 반대하시면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것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강명구 위원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대한민국의 성장전략 차원에서 구상이 된 것이지 단순히……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요.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강명구 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 범주를 벗어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요. 후보자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엉키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대구·경북에서는요 의료산업 클러스터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좀 대구로 이전해 달라는 주장이 있고요. 울산의 중화학산업, 경남의 기계·조선산업,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강원도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부 이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처럼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토를 사분오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한다는 게 이게 누더기식 행정이지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그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적 비전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안 서고

요.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재배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을 가늠하는 문제인데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 도구로 다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장관후보가 장관이 되시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명구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쪽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그야말로 행정수도를 형해화시키고 행정수도를 세종에 건설하겠다는 그 큰 흐름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 정책 협의라든지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 있어야 된다고, 다만 해양수산부 하나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큰 흐름, 큰 틀이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강명구 위원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중에 장관 되시면 후회하는 일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2022년 대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 주식거래한 거 있잖아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방산주 대량 보유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당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발표했어요. 기억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기억납니다.

○강명구 위원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거래를 한다며 조롱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 가며 강한 비판을 했어요. 여전히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조롱은 아니고요. 지지자들이 정신도 없이 이렇게……

○강명구 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강명구 위원 후보자는 그 당시 주식거래한 적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는 없지만 제 집사람이 한 적은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배우자께서 주식거래를 엄청나게 잘하셨네요, 보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강명구 위원 당시 2021년, 22년도 이 시기에 체이에스티나 주가가 상승세를 또 안정기에 들어간 국면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적절했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국회의원은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주식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상이 아니잖아요.

○강명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게 주식거래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소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내분이 주식거래한 것은 괜찮나요,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글썄, 저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떤 게 연결이 안 된다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와 제 집사람이 주식거래한 것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강명구 위원** 아내분께서 얻은 이익도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이익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주식거래를 한 것이고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0만 원 넘습니까? 3000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공격했던 말들은 어쨌든 부적절한 사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때 그 상황에, 대통령선거에 지고 난 뒤에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의 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2022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만t 중에서 LNG하고 가스 응축수가 한 60%, 원유·석유 제품이 21% 해서 비컨테이너형 액상·벌크 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다 보면, 북극항로를 이용하다 보게 되면 중간에 개척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항로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후보자님께서도 여수·광양항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수·광양항은 석유·LNG 중심의, 액상·벌크 화물 중심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잘되어 있어서 북극항로가 개척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적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7년에 태안반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여수인가요?

○**주철현 위원** 예, 여수하고 남해 사이의 여수해만에서 대형·초대형 유조선의 해상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4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상 환적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1000억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를 높이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가 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대서 이걸

중단을 시켰거든요. D-1 정박지 초대형 환적은 금지가 되고 W 혹은 일부 구역의 5만t 이하 부분은 또 환적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도 안 맞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해수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담보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해상운송인들이 원하는 D-1 정박지 환적을 좀 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 현재 어업 현장은 거의 재난 수준의 변화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 특보 도입 이후에 역대 최장인 71일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규모 또한 전국의 1430억 원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올여름도 무덥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렇게 하고 7월 초에 제주 해역 수온이 30도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수산업 현장도 고수온 피해 또 여름철 되면 저수온 피해를 피해 갈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이 구상하시는 근본적인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은 이게 근본적인 대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식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준을 좀 도입하고 그다음에 아마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을 좀 확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험료가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지자체가 분담해서 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철현 위원** 예, 옳으신 방향이고요. 다만 그것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한데 사전적으로 정말 이제 우리 해상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한 현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잡는 어업 또는 바다에서의 양식 이런 것들로 수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상양식과 관련된 경우에는 결국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LNG 탱크 옆에 있는 냉배수 이용하고 또 LNG 발전소 옆에 있는 온배수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육상양식함으로써 이게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기후위기라는 것이 뭐 일이 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바다에서 한다든지 또는 어획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앞으로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상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전환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김이 새로운 해상양식 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수출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기왕에 면허어업의 면허 대

상이 어촌계 내지는 수협이라든지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면허권을 본인에게 발급해서 일정 부분 뭐 하여튼 간에 귀여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방식의 면허제도 같은 것도 좀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장 문제는 지난번 잘 알고 계시던데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 이걸 올해, 원래 예산안에 의하면 일시에 상환하게 돼 있는데 올해에 일시 상환하게 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법을 강구해서, 지금 10년 분할 상환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3000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와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10년 분할 상환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수엑스포 부지는 해양관광레저 또 공공성을 감안한 그런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의 개발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3개 선정합니다. 이번 추경 때도 한 10억이 늘어서 선정하게 되는데 세계박람회도 여수에서 이루어졌고 여수세계박람회장도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수 중심의 해양레저관광 진흥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장관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가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결정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 그리고 외교의 미래를 북극항로를 통해서 열어 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북극항로 거점 조성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 항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또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께서 코리아 멀티……

(「정희용」 하는 위원 있음)

아, 정희용 위원께서…… 살이 빠져 가지고 좀……

그래서 어쨌든 그 컨테이너 물류라든가 에너지자원 하역 그리고 수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항만별 기능이 있을 것이고 산업들이 파생이 될 텐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서요. 크루즈 등 여객 중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만 교류가 있을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의 교류도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쳐져거든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항만별 기능 분담의 기초를 유연하게 잡고 나가시겠지만 이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 신행만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또 제주 신행만은 어쨌든 신남방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주 신행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4페이지의 UNOC 관련해서 자신 있으시지요, 개최? 유치하겠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유엔 해양총회?

○문대림 위원 예, UNOC.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12월 달쯤에 이것 확정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다음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개최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개최 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각 위원님들 보십시오.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이나 기구 관련해서 모든 것을 부산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원성들이 높습니다. UNOC 부분도 반드시 부산으로 고집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력을 따져서……

○문대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유엔 해양총회가 대단한 총회입니다. 한 1만 5000명 이상 정도가 오는데 산업이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총회이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만큼 부산에서 개최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일단 이것도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택 간사님하고 죽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글로벌 환경 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친환경 선박 전환율이 아까 7%라고 얘기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 정도.

○문대림 위원 18%?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도 저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LNG 선박이 친환경 선박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께서 LNG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보는 한 우리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LNG 연료도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한 7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형선사들이 LNG 선박 중심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나왔지만 연료 부분과 관련해서 암모니아나 메탄올, 수소…… 저희가 부산에서 OOC 총회가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 4월 달에 가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바빠서 못 가 봤지요? 저 가 봤거든요. 갔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게 연료에 관한 접근들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 분야의 탄소 저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보지는데, 아까 또 장관님께 제가 놀랐던 게 IMO가 승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벌금 부과 규정이 2050년부터 부과될 거라고 잠깐 말씀 주시던데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요. 2050년까지가 아니고 2050년에 완전 탄소중립을 하고……

○문대림 위원 2027년부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2027년부터 부과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이 2050년……

○문대림 위원 2027년부터 부과된다면 5000t급 이상 국제 해운에 대해서 그 탄소배출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이게 부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배들이 부담을 해야 될 액수가 천문학적에 이를 것이다. 이게 해수부에서 발표했었어요. 그러면 빨리 선박을 친환경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 국감 때 해수부에서 예산 규모를 35년까지 7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80조까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빨리 이게,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발 빠른 접근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18%로 얘기하시는 부분도 어쨌든 공공 부문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됐다라고 해수부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LNG 전환인데 LNG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른 접근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녹색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거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대림 위원 세계 최초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특별법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대림 의원님께서……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전기차도 우리가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도 선도했고 배터리도 선도하고 있고 장관님께서 취임해 가지고 사실 녹색선택·녹색해운에 대해서 세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도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서 문대림 의원님께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고 이 부분은 녹색해운항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2050년 완전 탄소 중립을 IMO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켜 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가 아니고 추진해야 되고요. 해운 탄소세는 27년도부터 부과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습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전재수 후보자가 그간 보여 주었던 태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 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졸속 행정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먼저 저는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부산시로 이전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저는 전재수 후보의 이 책을 한번 다 읽어 봤어요, 이것을 짹.

그런데 이렇게 전재수 후보자님 책도 다 봤는데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책을 보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쓰셨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첫 번째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산업은행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보시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산업은행 이전에 앞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쓰셨어요.

또 그렇다면 해수부도 이전에 앞서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이미 대통령……

○김선교 위원 줄속 부산 이전에 따른 인건비 또 운영비 증가 예측을 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글썄, 그게 아직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공개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은 한 이삼백 억 정도 되는 걸로……

○김선교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짹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의 86%가, 또 아까 참고인이 와서는 여기 와서 그냥 그 더운 날씨에도 적극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물을 먹었는지 또 아주 뭐 복지 시설만 잘 되면 언제든지 한다 그랬는데 86% 이상이 이전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또 가족들까지 나서서 삶 전체를 혼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내 해수부를 이전한다고 이미 빌딩까지 어설프게 확정 지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시기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어설프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선교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부산시에서 열아홉 군데를 주셨고……

○김선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북극항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모두 발언에 아주 후보자가 정말 우리 해수부 업무를 다 바꿔 놓을 것처럼 했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부산시장 나올 거냐 여쭙았는데 대답을 확실히 안 했어요. 이것 다 어떻게 업무처리…… 한 칠팔 개월에 이것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잠깐 한 1분만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김선교 위원 아니, 예스냐 노냐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 이전까지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런데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저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출마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특수 임무를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이게 정치적 도구가 아니냐,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북극항로를 한다, 해수부를 이전시킨다, 이 어려운……

그러면 이것을 꼭 금년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되느냐, 졸속 행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말 차근차근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이룬 다음에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해양수산부라는 중앙정부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부산으로 옮길 정도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적 측면에서 구상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복지 문제 등등 해서, 지금 해수부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문제, 가족 이전 문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학교 문제, 쉽게 얘기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완성을 이뤘을 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 내 갑작스럽게 이전을 시키면 전학 문제 등등 해서 아주 그런 것이 다 뒤에 전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 말씀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노조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들과 소통을 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의 주거 여건이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저도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달갑게만 생각지는 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책정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공약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열심히 추진하면 됩니다.

후보자님, 섬 관련 정책들이 5개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새 정부의, 전재수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은 요약하면 두 단어,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처 간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절실히 추진돼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문제점으로 보여 준 사례를 보면 2019년 수립한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수부·행안부·문체부·국토부가 참여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다라는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섬 정책 기본법을 제정해서 발전 정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후보자에게 여쭙는 거고, 그다음에 섬 정책 통합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대중교통법 제3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에 대해 정책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호를 보면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연안여객선 공영제 언제 실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2018년 등원 이후 8년 동안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총 열한 번 질의를 하고 여섯 번 정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가장 열악한 신안군 같은 경우에 1년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전남도가 지원한 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197억입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어려운 지자체가? 이런 것도 현실화돼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일반인들의 운임 비용도 나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이라고 함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표를 가지고 운항하는 운송 수단 아니겠습니까? 해상교통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는 곳은 민간 여객사들이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곳은 국가보조항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의 품질이라든지 또 여객선 관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하는 비용을 할 거면 차라리 공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 단기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맞다고는 하는데, 역대 정부가 아무 정부도 실천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내시라는 그런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실적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실적과 성과에 반드시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금의 70%, 천일염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6명 있던데……

○서삼석 위원 아니, 소금, 천일염의 70% 이상을 생산해 내는 데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 신안.

○서삼석 위원 신안군입니다.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가 신안군에 있어요. 이 연구센터가 한시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R&D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겨우 품질 검사나 안전관리 이런 업무만 수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소금산업을 진흥하고 연구한다는 그런 센터의 명칭에 걸맞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가지고 항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본연의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꼭 그런 관련 업무의 문제점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취임 이후에 R&D 활성화 등 이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후보자한테 전문성 결여다,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질문 중의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되 타 지역이 안고 있는 특히 수산 분야의 문제를 어떻게 이원화시킬 것인가, 별개로 이런 걸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복수차관제는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외청 등 설립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학, 의지, 결단, 추진력이 중요하다. 새 정부에 맞는 새 장관으로서의 보여 줘야 할 명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 마지막에 시범운항이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운항과 관련해서 예전에 다섯 차례 시범운항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DB나 이런 게 축적돼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시범운항을 하려면 친환경 선박 구입 문제라든지 또는 쇄빙선 문제 또 추진 조직 문제, 외국과의 협약 또 운항 DB 구축 이렇게 해서 실제 무역 항로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는 동남아에서 무역의 재편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무역, 거리적인 편익도 있지만 경제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의 무역 재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선정 또는 시장의 재편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려면 그중에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범운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아까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거점항들이 여수항에서 포항 영일만항까지만 말씀하시던데 인천에서 목포항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항만별 특성화 전략에 걸맞게 진행이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윤준병 위원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 국힘의 의원님들이 표정 관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조정태 위원님도 찬성하셨고 조승환 위원님도 찬성하셨고, 부산시장도 보도자료 내면서 적극 지지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그 지역구인 광규택 의원도 보도자료 내고 적극 지지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국정과제에 찬성하면서 시행 과정에 우려가 없도록 좀 준비를 잘해 달라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내용이 잘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0일 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 청사 위치도 정해져 있는 만큼 청사 이전은 될 거라고 보는데 우려되고 있는 게 850여 명의 해수부 직원들 거주 이전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낮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하에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연계해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지금 해운 기업, 소위 HMM 이전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해사법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전 문제가 있는데 HMM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결정만 되면 하겠다고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산업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여·수신 기능은 그렇게 부산으로 꼭 이전시켜야 될 기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금융 위주로 이렇게 정리돼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그런 내용으로 재편해서 해운업이라든지 또는 조선업, 거기에 해양플랜트업 이쪽과 관련된 정

책 기능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금융 기능 이게 이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산 분야가 소외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차관 문제를 약속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정기획위나 이쪽하고 협의는 좀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서 후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속앓이를 좀 했는데요.

○**윤준병 위원**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내용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래서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는 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요소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윤준병 위원** 전달은 하셨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전달은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업무 중에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사실은 해양수산부와 해경에서 단속을 통해서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 피해자인 농어민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불법어업 때문에 피해받는 어업인들이 실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물론 기본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부가 또 작금의 이재명 정부하에서 큰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재생에너지인데 바다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양산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 내고 거기에 송전선까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다행히 해상풍력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산자부하고 해수부 간의 역할 분담이 이제 제대로 정리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해수부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서 조기에 재생에너지의 활용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용에 관련된 내용의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1분 더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위원장 어기구**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 주의를 경계하고 많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주셨어요. 저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운·해양정책이 부산 중심의 일극화 주의가 가속화된다면 반가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해운·해양산업이 부산 중심의 일극화를 가속시키면 된다,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점은 부산이겠지만 여수, 광양을 거쳐서 울산, 포항까지 북극항로 항만권역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각 항만별 특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가 그겁니다. 미국하고 호주의 예를 말씀드렸지요. 지방분권형 해양행정 모델이 결국은 해양행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그 두 케이스를 한번 연구시켜서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리고 거기와 연관돼서, 바다는 부산에만 있나요? 바다, 한국에 바다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옥주 위원 화성에도 바다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당진 앞에도 바다가 있고 군산에도 있고 광양, 여수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 몇 개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동삼동 해양혁신도시에 7개 기관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은 제가 알기로 한 12개가 있어요, 부산에 내려간 것 말고. 그다음에 법정단체가 23개가 있습니다. 이것 둘을 다 합해서 한 3분의 1이 부산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부산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가지고 해운대에 영화영상혁신도시, 문현동에 금융혁신도시, 영도 동삼동에 해양혁신도시를……

○**이병진 위원**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부산에 해양과 관련된 인프라가 너무 집중되는 것은 또한 문제

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PPT 예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5년간 해양수산연수원의 선원 관련 법정교육 현황을 보니까 평균 85%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목포 12%, 인천 3%예요. 전체 교육생이 한 3만 4000명인데 수도권에 한 20%인 6800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기관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도권에.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PPT 한번 볼까요?

항만연수원도 마찬가지로, 86%가 부산에 몰려 있어요. 서남해권·수도권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위한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국가라고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사고하면 더욱더 균형발전의 의미와 개념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

○이병진 위원 동의 못 하시나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런 취지, 그렇다 그래서……

○이병진 위원 저는 어느 특정 지역, 일극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가 RE100 달성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습니까, 나쁠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좋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친환경에너지 비율?

○이병진 위원 예, 친환경에너지 비율.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한 20% 정도로……

○이병진 위원 10.5%로 나와 있어요. 24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PPT 한번 볼까요?

PPT 1 보면 태양광이 약 5%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3%, 해상풍력은 0.1~0.2입니다. 해양에너지도 0.1에 불과합니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낮은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바다를 흔히 뭐라고 하지요? 자원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보고라고……

○**이병진 위원** 보고입니다. 답이 너무나 어려운데 잘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를 잘 활용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취지에 따르자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이병진 위원** 취지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관적 얘기를 안 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드리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기후 에너지부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신생·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핵심 부서가 된다면 말이지요, 나는 거기에 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평택으로 들어 볼 겁니다.

우리 평택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공장인 삼성 반도체가 있어요. 전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3년 동안 전기료 인상이 125%가 돼서 지난 1분기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전기료를 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50년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삼성전자는 현실 벽에, 지금 RE100이 24.8%밖에 안 돼요.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자꾸만 만들어 갖다 쓰다 보니까 말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오늘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PPT 5번 볼까요?

평택항입니다. 개발 현황이에요. 이게 다 완수되면 600만 평입니다.

부산항이 어느 정도 평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것 다 완성되면 부산항보다 커집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대중국 전초항으로 개발해야만 되는 항구입니다.

이 부지 매입 전까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한 정책질의……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서 해수부가 부산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특수임무가 뭘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체제……

○**이만희 위원** 간단하게…… 아,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수임무지요.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방안을 너무 쉽게 찾으셨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쉽게 찾았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이만희 위원** 그 앞에 수많은 정권들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일극체제가 해소가 된다는 답을 몰랐을 리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후보자님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상시에 보고 느꼈던 후보자님과 또 장관후보자로서의 위치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과장이 심하시고 또 수미가 상관되지 않는 분이셨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인사청문 자료,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서 법안 관련된 법안 몇 개 또 토론회 몇 회 한 걸 가지고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수부장관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북극항로 개척을 얘기하시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은 물론이고 하나의,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문명사적인 변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후보자님,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선사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잘은 몰라도 10개 대형 선사 중에 항구도시에 한 7개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MSC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전 세계 1위 선사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국적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5개 대형 1위에서부터 5위 선사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중에 4개 선사가 북극항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아니면 좀 더 네거티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민감하게 경제적인 성장에 반응을 하고 뭘 하는데 이 대형 선사들이 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4·5등까지 하는 선사들 중에서 그렇게 절대다수가 반대를, 북극항로는 안 하겠다 하는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대외적 메시지로는 지금 현재 북극항로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거나 또는 사고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 또 기항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만희 위원** 답변을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건 대외 메시지고요. 지금 세계 1위에서 10위 사이의 대형 선사들이 내부적으로 북극항로에 대한 연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위원 당연히 많이 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되지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공약사항이라면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식이 올해 내로 해수부가 부산 안 가면 특수임무 수행이 안 됩니까? 올해 내로 부산에 가지 않으면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토론회를 거치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 다 생략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요. 후쿠시마 피담 관련해서 제일 앞장서셨던 후보자께서 해수부장관이 되어서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들 중에서 그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딴 식으로 너희들 해수부 일하나 질책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이만희 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수부 이전 관련된 문서, 쪽지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북한 황해도 평산의 우라늄 정제, 채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마 시료를 채취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정도까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측정하는 지점이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영종도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해수부가 시료를 채취를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해수부가 하는 것은 우라늄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관련돼 있는, 제가 우라늄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측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접 거기에 원안위에서 추천한 기구를 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

었지만 일부 언론매체가 활용해서 점검해 본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방사선 양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장관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폴로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방사선은 지금 통상적인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7일 날 경북 구미 한 건설현장에서 23살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숨졌다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 당시 고인의 체온이 40도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구미의 온도가 낮 최고기온이 37.2도였다고 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히 어이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당시 폭염이 발령되면서 혹서기 단축근무가 시행이 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오후 1시에 모두 다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에 남아서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산업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24년도 기준으로요 자료 화면에도 있는데요 외국인 선원 비율이 원양어선은 80%고요, 20t 이상 연근해 어선의 경우는 52%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굉장히 많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이제는 배를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어촌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더위 문제가 사실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7월, 8월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철판으로 이루어진 선박 외부 표면 온도가 저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78.7도예요. 저게 화씨인가 싶어 가지고 보니까 화씨온도가 아니고요 섭씨온도였어요. 그러면 저 선박의 외부 온도가 저렇게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들도 일을 하는 거지요. 이런 작업환경에서는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거나 하면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당연히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그 자체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는 마련이 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여쭙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다 보니까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이런 현실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에 1월 3일 자로 이게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외국인 선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 문제가 저희가 해결이 안 되면요…… 참고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 4월 달에 태평양전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도보류명령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수입 제품이 강제 노동 등 불법적 방법으로 생산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통관을 중단하고 억류하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국 각 항구에서 통관이 중단되고 보류되다 보니까 90일 이내에 ‘이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결국은 수출이 중단되는 거지요.

지금 태평양전의 소금은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런 문제, 혹서기에 작업환경을 이런 방식으로 그냥 어떤 조치도 없이 해 놓은 상태에서 조업을 시킨다면 저는 앞으로 인권 이슈가 수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수출 감소뿐만이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의 평판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시장 확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요.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의 어선원노동협약을 이제 우리 수산업에도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우리가 ILO 가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웬당 이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해수부의 입장은 그 입법에 관한 권한은 입법 주권에 해당한다 아마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임미애 위원** 이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국제 규약을 우리가 준수해 내지 못하면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조품뿐만이 아니라 수산업에서 생산해 내는 물건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 해수부 차원에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제 신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장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안겨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북극항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북극항로를 개척하려는 가장 큰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에 서울,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다극체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 일단은 북극항로의 개척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또는 캐나다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북극항을 개발하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로테르담까지 가는 북극항로, 수에즈운하, 희망봉 노선 말고 베링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쪽의 북동항로라고 보통 부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하는 이유가 무역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무역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무역적 물동량 또는 교류는 10위 안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이 독일이고 캐나다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이게 장밋빛 비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청사진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한 번쯤은 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의 무역의 교류하고 비교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님 지적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결국은 기항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항지가 없는데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이익이 나는 곳에 기항지가 마련되게끔 돼 있거든요.

○조경태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개척이다 차원에서 물동 할 수 있는 그 게 빨라지고 또 짧아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해수부 이전 부분은 헌법에 적시한 국가 균형발전적 시각에서 일극체제를 완화시켜 내겠다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해 주길 바랐는데 이

재명 정부가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한중 잠정조치수역에다가 구조물, 이른바 서해구조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의원들께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서해공정 규탄 결의안을 존경하는 정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이 백오십두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비례원칙에 따른 대응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비례대응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철거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또 해수부가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아마 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추경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길 바랐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요 용역비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하나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해서,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최선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실적과 성과를 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저는 부산에 살지만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호남지역의 해역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깐 큰 차원에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1일 날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가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를 단일 전구로 운영하면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겠다,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가 빠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해양주권에 대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강압적인 압력에 혹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뭐냐 질의를 하니깐 ‘이것은 국방부에 알아봐 달라. 국방부의 관계기관에 문의하라’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해양주권은 국방부도 필요하지만 해수부도 해양주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주무부처야 국방부 또는 외교부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것들, 바다 밑을 다니는 모든 것들,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위원** 우방국가와 해양안보 차원에서 공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휴식했다가 계속……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 어가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가부채 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 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어가소득은 어장의 감소라든지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령화로 인해서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얼마 전에 2차 추경을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예산 1조 4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이나 새출발기금 확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농민과 어민에 대한 지원도 일부가 포함돼 있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추측건대 아주 적거나 거의 없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과 어민에 대한—여기서는 특별히 어민과 관련된 부분이지요—이런 부채 문제라든지 채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농가부채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이 부분들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평균 60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7000만 원 넘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양식어가의 상황은 특별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024년에 1억 3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을 했습니다. 농가부채가 2024년에 평균 4500만 원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거고 양식어가의 상황은 특별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어가부채 급증에 따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양식어가에서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공장에 생산라인을 까는 그런 식의 투자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수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기존에 해 오던 정책만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는 어가소득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정책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든지 재해보험을 확대한다든지 또 정책자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것들은 늘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가소득은 늘지 않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진지한 평가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장관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어가와 어촌,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을 하시는데 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계로 전환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TAC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추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살펴본 TAC 제도를 좀 보니까 이게 1999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26년째 운영 중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TAC 소진율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60% 수준이라는 건 제대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당된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종이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반복돼서 소진율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TAC 배정과 관련해서 어민이나 지역별로다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 지역이랑 인천 지역의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할당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인근 지역하고 TAC 부분들이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재조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TAC 할당이 너무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원량이 풍족해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해수, 바닷물의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동해라든지 그런 데에 기존에 잡히지 않는 어종들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다랑어 떼가 몰려들었지만 국제기구로부터 한국이 배정받은 할당량이 적어서 많은 참치를 폐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한 양을 할당받기 위한 이런 국제협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TAC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개선 방안과 또 국제협력과 관련된 강화 방안이 어떤 제도개선 방안들이 있는지 좀 생각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전의 수산자원 조사라든지 평가 확대와 고도화 또 정확한 어획량 이런 통계를 좀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말하자면 과학적인 자원평가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을 해수부의 공직자들도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교한 대안들을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산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부분들이 적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기후위기 시대라든지 아니면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위축되는 환경이 발생을 하면서 수산업 관련된 부분들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요 잠시 정회했다 17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후보자님, 투명함과 정직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왔고 삼켰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보도자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보면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직자로서 자세의 기준이, 본인의 그 행태가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후보자님이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서 청와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장까지, 그전에 인수위 그다음에 충분한 공직생활의 경험과 또 정치 경력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민간 일자리를 못 갖게 하면, 사실 여기 의사나 변호사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되고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일자리를 갖는 부분은 본인의 공직 경력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시다. 그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도 같고 사실 저도 장관 청문회 하면서 자료 요구하면 끝까지 버티다가 청문회 당일 날 내고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부분에 대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산, 저는 사실 재산등록 서류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재산 공개 자료만 가지고서 제가 죽 봤는데 재산 공개 자료의 예금 항목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예금 항목에 지금 후보자님,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다 들어 있어요. 자녀는 미성년자니까 뭐 금액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부모님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등록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빠

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2017년에서 2018년 갈 때 어머님 같은 경우에 예금이 약 4500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머님 예금이 제가 봐서는 다 아마 소득은 후보자님 소득을 가지고서 어머님, 아버님 다 이렇게 부양자로 생활하시니까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에 이 정도 금액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투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해양수산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앞으로 이 기능이 항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전이 되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아까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종 이전의 예도 있고 또 청이 옮겨 간 예도 있고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완전히 궤를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뽑아 놓은 공무원들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진짜 편셋으로 딱 뽑아내듯이 해양수산부만 딱 뽑아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아까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봐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하게 이전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세종 이전해 갈 때는, 사실 어느 부처도 서울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사실 잘 아시지만 지금 수품원에 임시로 사무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사무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정부의 부처가. 그런데 이것은 편셋으로 뽑아서 가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해양수산부 본부가 감으로써 세종과 서울에 공식 직제로서 사무소가 설치돼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중앙부처로서의 어떤 협의 기능과 보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유지되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아까 해양수산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주거 안정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이번 기회에, 우리 클러스터에 넘어왔을 때 한 번 특별분양 해 준 것으로 해서 다 끝나고 지금 신규채용 직원들은 사실…… 보통 한 3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임시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성장전략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유념해서 장관으로서 공직 업무를 수행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거를 세 번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가족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으로서 공직 경험을 활용해서 민간 업체에 취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4000만 원 정도 예금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에 제 바로 밑의 여동생이 부산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이 식당에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야채를 고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동생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한꺼번에 다 되어 가지고서 ‘생활비 지출 및 급여 저축’ 이렇게만 증감 사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국회의원 재산신고 할 때 통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예금 증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으로.....

○조승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는 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질의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수부 공직자들에 어떤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거기에는 주거 문제,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의 문제를 포함을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허브도시법, 산업은행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로벌허브도시법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절박한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에 좀 봉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은행 이전의 문제는 이미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조선 산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 또 친환경 선박 만들고 이런 선박 보증, 선박 투자 또 해양금융을 하기 위해서 이미 동남투자은행을,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이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 출자를 해 가지고 동남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은행은..... 그리고 산업은행 내 해양금융센터에 한 80명 정도 직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동남투자은행을 3조 원 규모로 출자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한반도 남단에 해양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드는 데는 동남투자은행이 더 실효성 있고 정책적인 효용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검토할 것은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좋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후보자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달에 추경 통과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강도형 장관님께 추경 여기 우리 농해수위 심사할 때 두 가지를 당부드렸거든요. 농림, 해양 쪽 공히 마찬가지로인데 전기료 있지요, 전기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임호선 위원 전기세 부담이 무척 가중되어 있는데 추경에, 여기에서는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의견 합치를 봐서 올렸는데 그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큼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관 임명되시면 살피서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때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부채 탕감이 사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강도형 장관님한테도 여쭙었는데 추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림부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에게 농어민 부채 문제를 전혀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파악을 해 보니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5000만 원, 7년 이상 부채는 기본적인 탕감이 되는데 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 채무 일괄 소각 예산이 4000억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4000억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농어민 부채 부분은 여기에 사실은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캠프 출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7000억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어민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서도 논의를 했는데 본 추경안에는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민들의 부채 문제가 수협 자료를 받아 보니까 되게 심각합니다. 2021년 말 수협에 연체된 총액이 457억 원 정도였거든요. 약 500억이라고 보면 지금 1586억이에요,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연체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 하면, 연체자 수는 대부분이 어민 쪽이시잖아요. 연체 1155명이었는데 지금 3334명,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빚더미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게 우리 어민·어가의 현실이다, 현장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꼭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제가 경찰에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경 문제를 많이 유심히

살피거든요. 해양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이쪽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대책본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급인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재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니까 제 역할을 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7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해양수산 분야 관리 재난 항목이 종전의 4개에서 7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임호선 위원 그래서 해양사고나 해양재난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피해가 고수온을 포함해 가지고, 앞서 존경하는 어떤 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망·실종만 봐도 재작년에 89명이었는데 작년에 164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도 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의 문제인데 예산을 살펴보니 풍수해·조수해 예산 807억 원 감소됐고요, 폭염 예산도 250억. 그러니까 예산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건 사고나 재난 피해, 고수온 피해 이런 것들이 막 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영토 수호 의지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질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중 간의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 현황 대충 보고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여기 보면 군사정찰용 의심부표가 13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1호·2호·3호 그리고 우리 해양조사선이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저지를 당하는 일이 지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응,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 10억 이런 대응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경 쪽에 물어보니까 금년 12월경에 3000t급 이상 1척을 고정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2척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 배치할 거면 왜 12월까지 미루며 왜 내년 2척이어야 되느냐.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장관님의 국토 수호 의지라고, 영토·영해 수호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문제도 그간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조사선 하고 동해 일본 조사선 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본은 80회 이상 거의 매년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사선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게 30회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서해 NLL 인근의 중국 어선 출현도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나포 실적 같은 걸 보면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장관님을 중심으로 한 해수부 공직자들의 정말, 영토·영해 수호 의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 영토, 해양 주권에 관해서는 비례 대응 원칙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관계부처와 정말로 국익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최근에 민물장어생산자협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아시고,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EU에서 뱀장어 자원량 감소를 이유로 극동산 뱀장어를 포함한 뱀장어 19종 전체를 CITES에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물장어는 내수면 어업의 74%를 차지하고 우리 인공종자기술이 부재하기 때문에 치어를 80% 수입에 의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자연채포로 치어를 수급하는데 국내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는 약 11만t인데 국내에서 잡은 실뱀장어는 2만t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232개의 국내 뱀장어 양식, 장어 양식을 하고 있고 어가가 있고 5140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장어구이나 장어탕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고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외교부 등 관계부처하고 잘 협업을 해서 CITES 회원국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뱀장어 국내 포집 기술 개발이랄지 산란 기술 연구개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도 좀 관심 갖고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었고 전 정권에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이 사업이, 비록 해수부에서는 갈수록 예산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수요도 많고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진행돼 온 어촌뉴딜300 사업이랄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어촌 소멸 대응 사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아까 장어도 얘기했는데 보성 벌교 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시지

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참꼬막인데 지금 참꼬막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6배 이상 폭등을 한 상황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에 따른 갯벌 오염 또 갯벌의 노후화, 거기에 따른 갯벌 생산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지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25년에 효력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차 계획을 추진하실 때 갯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갯벌의 생산성 회복을 위해 갯벌 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신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일부 어민들은 오죽했으면 고대고리를 다시 일정 부분, 그동안 금지했던 고대고리까지도 한시적으로라도 허가해서 갯벌을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뒤엎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아울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금어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총 34종 여러 가지 수산자원에 대해서 금어기를 설정 중인데 또 처벌까지도 따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또 어업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인해서 금어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금어기가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금어기가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해수부는 그런 지역현장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꽃게의 경우는 현재 6월 20일부터 8월 20일이 금어기인데 지역별로 어떤 데는 산란기에 금어기가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그 반대로 돼 있는, 그래서 지역별로 또 해역별로 이런 부분들, 금어기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이 좀 시급하게 긴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랄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어기 조정을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기후환경 변화에 맞게끔 좀 빠르게 재조정, 민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저도 중앙부처 근무를 해서 느끼는 건데 아마 장관님 입장에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 오죽 알아서 직원들 복지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해수부가 세종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예전에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다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서 우수 자원들이 세종으로 가는 부처에 대한 지원을 안 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산으로 가게 되면 우수한, 오늘 또 대통령께서도 진천에 가셨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급 합격자 연수원 교육을 가셨던데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 해수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

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부산 이전에 따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장관 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응책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물장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외교부하고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촌뉴딜300하고 어촌신활력 사업은 사실은 지역에서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를 조금 더 하면 지역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 정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갯벌을 복원하고 또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차 갯벌 기본계획 이것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 봐 가지고 갯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어기 재조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서남해권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수산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관련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후는 빨리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산자원 조사까지 해서 4월 달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달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지금 기후위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금어기 문제도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수인재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해수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행정고시 1등 하신 분들도 해수부에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부처가 됐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면 이 우수한 인재들이 해수부를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공직자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총동원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는 최첨단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명예심을 우리가 가슴속에 가진다면 더 우수한 인재들이 해수부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과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들 질의가 남았는데요.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소비쿠폰 얼마 받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15만 원 받습니다.

○정희용 위원 15만 원 어떻게 쓰시려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집 앞에 칼국숫집이나 골목상권을 잘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수산물 소비 진작에 힘쓰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칼국수에 조개 많이 들어갑니다.

○정희용 위원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집중호우 예보도 있었지요? 집중호우가 있으면 양식장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산소포화도가 떨어집니까?

○정희용 위원 그렇기도 하고 민물이라든가 염도가 떨어지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염도도 떨어지고.

○정희용 위원 염도가 떨어져서 피해가 생기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폭염 또 집중호우·이상기온 때문에 피해가 많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경북의 울진군만 해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에 4억 6000에서 2024년 11억 5000으로 급증하고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재해보험 보장 확대, 가입 절차 간소화, 고수온 피해경보 예측시스템 고도화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또 어선 감척 부분 이 부분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늦었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추진력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 그게 어민들의 생활·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후보자님,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7월 4일부터 2주간 원안위·해수부·환경부 합동으로 10개 정점에서 우라늄·세슘 등 방사성 오염 여부 조사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14일이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4일 뒤면 발표가 되는 겁니까, 2주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직 보고는 받은 건 없고요.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원래는 해양수산부가 우라늄 조사는 안 했는데 이번에 언론과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라늄 조사를 추가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원칙은 투명하게 이것을 국민들께 공개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장관님께서 답변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개 정점으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할 때 정부에게 과하다 할 정도로 검증해야 된다,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세게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

다면 검증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북한 당국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동의합니다.

○정희용 위원 어떻게 항의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당연히 우리의 바다 또 우리의 수산물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당국에 경위라든지 또 향후 대책이라든지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이고 또 통일부와 외교부 당국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해수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IAEA에서도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IAEA나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국민의 생명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관련해서 지난 7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 당시에 25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찬성 252, 기권 7명이 있었습니다. 기권하신 분들은 왜 기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만나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결의안 내용 중에 보면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구조물 비례 설치 또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결의안 이행 계획을 제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요청을 하니까, 해양조사선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온누리호. 그러니까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겠다 이 정도 답변이고 동일 비례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강력하게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동의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차 추경안에서 서해 구조물 무단설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10억을 넣었는데 그때 단독 처리된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최종 미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이걸 대응을 하려면, 동일 비례원칙을 하려면 구조물이 얼마인지 어떤 걸 설치해

야 되는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질문 이후에 후보자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 부분은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정희용 위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분들의 위원님께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자님께서 3선 국회의원하시고 부산에서는 민주당으로서 유일하게 당선되셨고 아마 해수부 내에서도 거는 기대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 가능하실 거고 또 총리실,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수부의 묵은 과제들, 숙제들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후보자님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집중을 하시고 이게 또 지방선거하고 연결돼 있다, 또 후보자님의 출마와 연결돼 있다 이런 오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진정성이나 역량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해수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해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장관을 하시면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우리 간사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5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확실하게 실적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자꾸 장관님이라고 하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해수부 부산 이전은 사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해서 국민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결정날 때는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내기도 하고 또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이미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만 하나 우려 점은 노조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이고 또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이전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거 문제든 복지 문제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라면 마음을 열고 그 구성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후보자님, 국내 수산업이 사실 어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어가 소득은 정체돼 있고 그런데 어가들 빚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형국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과연 국내 수산업에서 우리 어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도 이번에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기후위기가 촉발한 위기가 우리 어민들, 어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원택 위원 기후위기는 하나의 계기이고요. 그전에도 어가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높았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낮아졌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개 바다에서 어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지요. 그다음에 양식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갯벌에서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하겠지요. 그다음에 해조류, 김이라든가 이런 해조류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또 내수면 어업과 양식을 통해서 대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원택 위원 또 하나 섬 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이 다섯가지 분야에서 어민들이 주로 소득을 올리는데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물에 대한 현대화를 좀 해 가야 됩니다.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바꾸는데 20%뿐이 안 돼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위판장 현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돼 있잖아요. 십몇 %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수산이력제 도입하는 것도 한 영점몇 %뿐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는 행위를 해서 어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기후위기 때문에 고수온에 따라서 사실 금어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 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 줘야 거기에 맞게 어민들이 또 대응을 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실 고수온과 저수온이 있지만 그 고수온에 따라서 양식장의 어류들이 결국 폐사하는 것이 있는데 긴급방류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정비를 해서 어류도 살고 또 어민들도 걱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긴급방류제도를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섬과 관련된 연안여객과 관련된 공영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원택 위원 그것은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상교통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에 준하게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상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택 위원 액수도 얼마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액수도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결단이고 정부가 설득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북극항로라든가 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응을 이제 IMO의 어떤 과정급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데 한마디로 국내 선원을 양성하는 체계를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적선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아까 전략작물이랄까 전략과 관련된 자원을 운송하는 데 국내 선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선원 양성 체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양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원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해운업이 성장해 가려면 국적선사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선원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새만금신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관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검역소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항만관리청사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준비돼야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준비 로드맵이 없어요.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준공은 하는데 배후부지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정부가 재정 100% 지원해서 하는데 유독 새만금만 민자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북에 대한 홀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 계속 주장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던 건데, 이것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 부분은 재정사업으로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이미 다 재정사업으로 했어요. 장관후보님이 좀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후보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장 어기구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을 거의 다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간담회를 주로 사용자 측보다는 노동자 측과 많이 했습니다. 사용자 측이야 늘 만나니까 노동자 측 목소리를 듣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는데 장관이 되시면 현장에서, 일선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노동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혹시 장관님, 항만보안직 노동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국가 1급 보안시설인 항만을 지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나라 항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테러 훈련 또 마약과의 전쟁, 밀수 등 이런 데의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보안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용 형태나 근로 조건이나 임금 수준이 항만별로 다 다릅니다. 항만별로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들어 보면. 그래서 제가 해수부를 통해서 용역도 발주해서 시켜 본 적도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보면 항만 노동자, 항만보안 전담 기관을 설립해서 이 문제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특별히 이 항만보안직 노동자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항만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 이게 용역 결과가 그렇거든요. 이 점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시애틀 항만청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항과 자매항이라 그래요. 시스터 포트(Sister Port)라 그러면서 부산항 관련 관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진항만 청장들을 만나서 우리 항만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9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순서에 따라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강명구 위원입니다.

해양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된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국제 해양 정책을 이끌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최종 종합보고서를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로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지요. 후보자님,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 여전히 동의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 6월까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열두 차례, 한 9만t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전체 방류 목표량의 한 7%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다, 우리의 수산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대로 방류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기물 방류 의혹, 후보자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논란 당시에도 IAEA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에서 국제전문가가 함께 그 기준과 장비를 활용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 IAEA 보고서를 두고 객관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은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기자회견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종합보고서 후쿠시마 핵폐기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이것 발표하신 것?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글썽,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된 지금 북한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엄정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같은 기준, 그 검증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다, 똑같은 기준에 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것은 아마 IAEA에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매뉴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핵폐수 문제만큼은 엄정한 검증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 핵 사찰단을 꾸려 가지고 북한 현지에 직접 들어가서 가지고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개 검증하는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후보자님 해수부장관이 된다면 북한 핵 사찰단을 구성해서 검증 절차를 직접 주도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은 이 문제는 관련 부처가 부처 간 협의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의 NSC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SC에 제가 참여를 할 때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명구 위원 장관의 자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움직이시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과학에 기반한 정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요 말로만 과학을 말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폐기물 문제에도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명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꼭 직접 대응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항만공사 항만보안 노동자들 문제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특수경비를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4대 항만공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 전에서 전광석화 같은 추진력을 보이셨던 장관후보님께서 책임 있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지요.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후보자께서는 해양강국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렇게 굳은 포부를 밝히셨고 해양강국의 핵심인력이 선원들의 땀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답변하는 과정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선원들이 부족한 이유가 선원들의 처우와 임금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열악하다 이런 얘기 같이 공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선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선원의 노령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의 선원들이 전체 내항선의 경우 57.4%에 달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임금과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선원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또 업무의 특성상 청년들이 기피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와중에 해수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2023년에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 이렇게 해수부가 포부를 밝혔어요.

그런 와중에 강릉에서 독도 울릉도를 오가는 씨스포빌이라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 여객선 노동자들이 21년도에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고 해고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원노동위원회의 부당 구제 명령이 나왔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에도 승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4년째 우리 노동자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수단을 다 거쳤는데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되지 않으면 누가 선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이 회사를 상대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관련해서 씨스포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모두의 광장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모두의 광장 1호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건지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전근대적인 노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럴 수준의 나라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진행이 됐다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후진적인 형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씨스포빌 선원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사와 선원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더더구나 선사를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에 합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선사와 선원 간

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쨌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직하고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사……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빨리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하고 선원 간 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 차원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후보자의 모두발언 7페이지를 보면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여건’을 언급하셨고 ‘그런 어촌과 연안을 기회의 땅으로 활용하겠다’, ‘거점 연안지역에는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남해안의 해양·문화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략하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여러 지명을 거론하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신안을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 공약하고 후보자의 모두발언하고 궤를 같이한다고 봐도 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 특히 해양·섬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신안군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명은 생략하고 신안군 도초도의 대지의 미술관, 비금도의 바다의 미술관, 안좌도의 태양의 미술관, 자은도의 인피니토 미술관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미술관이야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약과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방문을 한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가 정말 예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방문을 한번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 제가 초청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제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초청할 수는 있는데 그 주체는 신안군이 한 겁니다. 꼭 한번 방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의향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기왕 가실 거면 요즘 회자되고 있는 염전 현장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서삼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제임스 터렐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을 쳐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제임스 터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신안군 관계 공무원하고 문체위원장님하고 미팅, 면담이 있었습니다. 문체위원장께서도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으니까, 해양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이니까 문체부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공론화해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지금도 해수부와 문체부 사이에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삼석 위원 챙겨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수한 사례들이니까 꼭 적극 활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취임하시면 지원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국내 내수면 면적이 국토 면적의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알기로는 한 4.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면적의 비율은 낮지만 모든 지자체가 내수면을 포함하고 대상 지역도 좀 광범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023년도 기준 어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보면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4만 3000t으로 전체 생산량 대비 1.2%에 그치고 있지만 생산금액은 6846억 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서 내수면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화면 보시면 이해 가지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수면 어가 수는 줄고 있어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어가 수 감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수입 수산물 증가, 시설 노후화, 고령화 등에 따른 경쟁력 상실과 내수면 유통과 가공 인프라 부족,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낮은 선호도,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 지원 미흡, 기초적인 수준의 스마트 양식 기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내수면어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동의하시

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 또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향후 장관이 되신다면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어촌의 고령화, 어촌의 소멸위기 타개책 이런 방안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농어촌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금 매칭을 좀 적게 해 준다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기초지자체들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 매칭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거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지역구 양평군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해수부도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아예 뜯어고쳐 가지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국비 비율을 확 높인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교 위원 국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 김 좋아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아주 잘 먹습니다.

○송옥주 위원 김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1조 3700억 원이 수출이 됐고요 김이 수산물을 넘어서 세계 속의 K-푸드 대표 품목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략산업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비 50%와 자부담 50% 자조금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 산업은 발전을 하는데 자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에 10억 600만 원인 부분이 올해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14.2%가 감소를 했는데요. 보니까 자조금의 총액은 증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쪼개 주느라고 김 산업에 관련된 자조금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여러 품목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 상품을 육성시키고 그러한 사례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수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350억 원을 투입해서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 주체가 선정이 됐나 봐요, 사업자가. 그런데 주로 대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미 자기들의 자본과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하기보다는 김을 양식하거나 건조·가공·수출하는 소규모 어민들이라든지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투자되는 부분들, 대기업에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소 가공·수출 업체의 의견과 여러 가지 견해를 들었는지 부분과 이런 소규모 어민과 중소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수렴과 대책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풀무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김을 생산하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어민들에게 전수를 해 주고 그리고 이 어민들이 그런 전수받은 기술을 가지고서 김을 생산을 해 가지고 김을 풀무원 같은 대기업들이 구매를 해 주게 되면 대기업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순환적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거기서 생산된 것을 대기업이 구매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송옥주 위원** 어쨌든 중소 어업이나 일반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아무리 오늘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 봐도 과연 후보자님이, 저를 좀 봐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신 전문가 분이다’ 이런 청문보고서 내용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가 문건이 총 4건이 왔습니다. 하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팀 구성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추진기획단으로 된 게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 장, 한 장씩인데 정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런 절차나 제대로 된 준비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계약한다는 임시청사 아이엠빌딩 19개 층 전역이 1만 2000㎡ 정도가 되고 협성타워가 6개 층에 3200㎡

정도가 되는데 이 건물이 모두 30년 이상이 돼서 이걸 전부 다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해수부의 생각 하나는 이것은 임시청사이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편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불하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준비 과정에서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 해수부 공무원들하고 후보자는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차관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이 젊은 공무원분들과 수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인 간담회나 대화를 한 그런 접점은 있습니까? 있으면 당연히 나왔겠지요. 왜 그러느냐면 부산 이전 관련해서 간담회는 이 1건 나와 있어요. 유관단체, 수협중앙회, 해운협회 이런 분들과 간담회 한 거요. 그것도 7월 초에 한 그 1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졸속으로 아니면 무계획하게,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극항로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나머지 질의는 또 한번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제가 조금 말씀을……

○위원장 어기규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만희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저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채워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0대, 21대, 22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국정감사 또 국회 정무위 활동 또 문체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짓수는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2018년도 정무위에서 북극항로 대비해 가지고 트라이포트 구축해야 된다, 2021년도 국회 정무위에 있을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 해운 공동행위 과정금 부과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된 관련법 여덟 가지를 대표발의했는데 이것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해운·조선·물류·항만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출된 그 공문에는 공식적인 TF 차원의 회의라든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 공직자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실국장님들 또 소속 과의 과장님들께서 소속 공직자들과 유무형의 공식·비공식적인 간담회라든지 또 의견수렴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이가 몇 학년인지,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나중에 옮길 때 문제가 되니까—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수……

마치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아까 이어서 말이지요 PPT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택항 개발 현황인데요. 향후 매립해야 하는 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지를 저는 매립 전까지 수상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길어야 한 30년, 50년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매립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신성장추진단에서 지자체와 국내의 태양광 기업들을 만나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경우 최대 30조 4860억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에 원전 짓는 데 보통 8~10년 걸리는데 저것은 2~3년 만에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의 50% 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서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과 지금 만나 볼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후보자께서 평택항 배후단지 유희부지를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인근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핵심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일거양득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항만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병진 위원 예, 그래서 전향적으로, 만약에 법이 문제가 된다 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도 물 많은 곳을 활용하고 또 거기뿐이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평택호, 남양호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압선을 설치해서 저 밑에서 끌고 오느니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변전소만 세워서 우리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와 용수 문제로 인한 애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시설이라는 것이 이게 좀……

○이병진 위원 끝나고 좀…… 시간이 없어요. 재보충 또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선원의 고령화 문제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이병진 위원 지금 6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삼십 대는 한 16%에 불과하고.

과거에 바다에 나갔던 가장 메리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높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4508만 원, 1년 평균 연봉이 말이지요. 제가 추가 보충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호 위원** PPT 좀 띄워 줄래요?
우리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이 해상풍력발전 허가 97개소인데 서해, 남해, 동해까지 다 분포돼 있습니다. 총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게 PPT상에 떠 있는데 여의도 면적의 838배, 축구장 면적의 약 100만 배 크기입니다. 정말 큰, 넓은 면적인데요.

면적이 넓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수십 년간 배타적으로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상 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약 838배가 누군가 개인에게, 허가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안이 있다.

특히 자본 비율을 보면 외국인 자본 비율이 약 56%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더 심각한 사안은 어업활동보호구역의 한 90% 이상이 해상풍력발전 허가지역과 겹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에 맞춰서 해수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어업의 생태 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상풍력발전이 해수부 전담 소관 사안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산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여러 부처가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한번 넘겨 주시면, 전역에서 사실상 해상풍력 반대 시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신중하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적으로 좀 난리 상황으로 평가를 해도 무난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달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해수부에서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입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 이백오십 가지 정도의 항목을 고를, 정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입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이러한 내용도 계획입지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라든지 또 해양환경 생태를 제대로 보존하는 선에서 계획입지가 마련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 바다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의 선진국가,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가들 가 봐도 우리나라와 해외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친수를 활용한 관광산업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보시면 여기에 ‘연안·도서 지역의 SOC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지원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도서나 또는 연안지역은 사실 수도권에 약간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인데요. 부산은 6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소멸 위험지역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뭔가 해양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장관후보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앞의 전임 장관님한테도 말씀했다시피 2020년도에 해수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참 잘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데가, 다대부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두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그냥 항만물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작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또 국민들을 위한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것이 또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일자리산업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저도 다대부두 가끔 가 보게 되면 이거 제대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또는 민간 자본을 좀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와 마을 또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맞습니다.

부산이 보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한 8대, 10대 경제대국인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수영 요트장이 한 330 규모 정도밖에 마리나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로 봐서는 부산에 최소한 3000척 정도는 댈 수 있는 그런 마리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안 나가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이런 일석이조로 해양수산부가 건인해 나간다면 상당히 좀 더 우리 친수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우리 조경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수영만에 있는 요트 레저 동호회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주차장인가 뭔가를 짓는다고 요트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동

호인들이 다 쫓겨날 판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부두 같은 이런 데도 우리가 잘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요트 레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도 살리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변 상권까지 같이 살아 가지고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보니까 우리 낚시 인구가 720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23년 통계에 나와 있네요. 종전에 500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00만을 육박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1일 낚시 국무회의에서 1000만 낚시인구 지원 이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격언 들어 보셨습니까? 그물로는 고기 씨를 못 말려도 낚시로는 고기 씨를 말릴 수 있다.

낚시하고 지금 우리 어민분들하고, 여기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업인과 낚시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게 지난 6월에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세운 내용 중 4개 분야 10개 과제 중의 네 번째 과제거든요. 어업인과 낚시인 갈등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어서 기껏 섬 인근에 마을어장식으로 해 놓으면 낚싯배가 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 간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규제만 해야 되나? 방법이 뭘까? 이 계획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선상낚시면허제 따로 뒤편에 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획할당제를 뒤편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별도 금어기를 설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낚싯배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물을 걷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손에 낚싯바늘 같은 게 막 찔려 가지고 말도 못 하는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 중에, 지금 우리 낚시 대중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 전용 TV 방송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이 마당에 후보자님 낚시교육장 있는 거 보고받으신 거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임호선 위원 낚시교육장이 저는 전국에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데, 특히 저희 중부3군 같은 데는 낚시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낚시교육장을 만들고 여기 기본계획에 낚시복합타워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런 낚시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어디서 낚시에 대한 소양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또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하지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골프로 치면 매너 교육이 전

제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낚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준비를 해서 체계적인 그런 소양부터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님께서 낚시인들과 어업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낚시인들의 교육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개발도 하고 또 낚시인들도 만나고 어업인들 만나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낚시와 관련된 예산은 또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정책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겠는데 계속 지금 부산 이전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 걱정입니다. 특수임무를 수행, 북극항로를 활성화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간다 결국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전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전 분야에, 해양 영토부터 시작해서 해양 환경, 낚시, 수산업, 양식어업, 잡는 어업 그 폭넓은 분야에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정책 부서인데 이게 북극항로라는 것을 가지고서 부산을 내려갔다 이게 저는 완전히 그냥 부산 이전을 위한 하나의 명분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북극항로에 대해서 도대체 특수임무를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저는, 지금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저는 개척이라는 용어를 오늘 한 번도 안 쓰셔 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용어로서 개척이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정치적 수사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국제 환경이나 안보 환경, 우리가 북극이사회 8개 국가 그다

음에 옵서버 국가 13개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해양 환경이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외교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개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셔 가지고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이것은 그냥, 제가 숫자 잘 안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북극항로, 그러니까 북동항로의 공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공해?

○조승환 위원 공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승환 위원 제가 한 15~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러시아와 미국의 추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조승환 위원 캐나다의 연안국가들이 있으니까 배타적경제수역이 다 뻗쳐 있고 하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예다가 폴라 코드(Polar Code)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 환경 부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그다음에 또 BBNJ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그러면 모든 영역이 사실 다 연안국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북동항로에 지금 물동량 이야기를 간혹 간혹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LNG나 가스나 비컨테이너나 이런데 이것은 사실 야말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물동량입니다.

저도 시간 지키고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께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요,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해상풍력은 사실 대한민국의 바다를 내주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전력 계통을 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사실 전력 공급이, 그러니까 전력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외국의 자본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외국 국영기업에 전력 산업을 내주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루속히 전력 산업에 관한 주도권과 공급망에 대한 자립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력 산업의 주도권 그리고 공급망 자립 이것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려면 재원의 문제, 기술의 문제,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2035년까지 서남해안 그리고 2040년까지 U자형을 완성시킨다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육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단은 동·서·남해에 걸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계획상 2040년까지로 되어 있고……

○문대림 위원 2040년까지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산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78조에서 100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실상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해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상풍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림을 해수부가 그려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약이라는 것이 아주 막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나……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초고압 직류 송전과 관련해서 주민수용성의 문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 재원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해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게 어찌면 현실적이다, 이때 해수부는 이제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햇빛연금·바람연금, 그러니까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람에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분도 없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대림 위원 이 공공재를 가지고 어쨌든 이익의 공유화에 대한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 내는가가 결국 미래의 해상풍력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의 해저 추진에 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그래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연금·바람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의 이익 공유 모델도 있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익 공유 모델이 여럿 성공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덧붙여 가지고 더 멋진 그런 이익 공유 모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전담 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오전에도 우리가 관련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는 솔직히 농어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은 앞으로도 더 자주, 더 길게, 더 넓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전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취지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고수온 피해에 대한, 지금 현재 수산 재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데 주계약에 산입해서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고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 주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과세 논란 이 부분도 해결이 시급하게 돼야 되겠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감척하실 때 기준을 지역의 고령화, 고령인구들을 고려해서 고령자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준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지요, 답변하시는 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애연가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문대림 동료 위원께서 꼭 이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해서 대신 묻는데, 앞으로 담배 계속 피우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끊을 예정입니다.

○문금주 위원 권리가기는 한데,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공공청사를 관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장관실, 차관실 또 어느 공간에서도 흡연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관님 초라하게 밖에 나가서 추운 데, 더운 데 가서 담배 피우는 게 상상이 돼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는 것도 어떨까, 건강도 생각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도 무능한 것이더라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닙니다. 청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어찌 됐든 전문성은 약간 부족할지라도 해수부에 전문적인 참모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힘 있는 3선 의원 정치인 출신의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해수부에 계시는 공직자들만큼 제가 전문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한다면 해수부에 전문가 수준 이상의 유능한 해수부의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이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늘 조언을 구해서 해수부가 정말로 특수임무,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수도권을 하나 만드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후보자님,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저는 관련돼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상실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발전계획이 골고루 서서 지자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해수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앞서 말씀 드렸습시다라는 해수부의 역무,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해양플랜트 업무라든지 행안부가 갖고 있는 유인도 문제라든지 문체부가 갖고 있는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수부로 이관시켜 오는 것도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직원들 문제도 상세히 살펴보면, 12월 달까지 이전을 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가서 집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주거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후보자님께서도 자녀, 따님들 키웠지만 아이들 학교 전학 문제 이게 학기하고 맞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수부를 이전해서 특수임무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걸 정치하게 준비해서 충분히 로드맵 안에서 하여야 되지 이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속도가 결정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드맵을 촘촘히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질문 끝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7월 8일에 경북 영덕 앞바다에 참다랑어 1300마리가 폐사한 거 얘기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봤습니다.

○정희용 위원 쿼터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빨리 최대한 쿼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추가 배정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하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경북의 경우에는 국내 업종 간 대형 선망·정치망 쿼터 조정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포획된 참다랑어를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비용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다른 거를 못 잡고 이걸 잡아 왔는데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업인들의 보상 방안 또 초과분에 대해서 연구나 가공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다양한 방안들을 해수부에 제안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선 이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간단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참다랑어 말씀도 해 주셨습시다만 쿼터, 이것을 만약에 유통을 해 버리게 되면 여러 제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출도 못 하게 돼 버리는 상황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참다랑어 한 마리가 200kg짜리도 잡혀 올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번 한 번의 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쿼터를 조정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정부를 이전한 경험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서울에 있었던 많은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전을 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교훈을 좀 찾고 그걸 신중하면서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결단이고 의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이전을 해 온 거였고 그래서 지금 세종이 탄생하게 된 계기인데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해수부 이전 결단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약간 지금은 신중하지만 또 차근차근 잘 세워서 가 주시면 그게 우여곡절은 있지만 잘 정착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걸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일정상 무리가 있거나 또는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결단에 의한 추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풀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7번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 분야에서 탄소중립입니다.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해수부가 국내 해운, 수산·어촌, 해양 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이런 분야에서 2018년 배출량이 있고요. 205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에 구체적인 단계별로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국내해운에서 101만t이 2018년에 배출됐는데 131만t 정도로 50년에 유지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30만t 정도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수산·어촌에서 304만t인데 11만t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50년에. 그런데 늘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해양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해양 에너지에서 조력발전 보급 확대, 조류·파력 복합발전 이런 것을 상용화해서 229만t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행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요. 전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블루카본을 통해서 136만t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실행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목표를 정할 때는 적어도 연차별로,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이 공란으로 돼 있고 그리고 50년 목표 배출만 나와 있는…… 그래서 저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문서인가 하는,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제가 취임을 한다면 이 부분은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면 새로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 위원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항목을 나열해 줬잖아요. 조력을 통해서 백삼십, 이백…… 몇만 톤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229만t입니다.

○이원택 위원 200만t 이상을 줄이겠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해운에서는 30만t이 들어가요. 친환경 선박 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점검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추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거의 다 계신 것 같은데요.

강명구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작하십시오.

○강명구 위원 강명구 위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북극항로, 인류 재앙을 경제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명분 중 하나가 바로 북극항로 개척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북극항로, 거리나 시간 면에서 물류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대전제가 10년 후에 어쨌든 북극 빙하가 적어도 여름철에는 다 소진될 거다, 소멸될 것이라든가 전제하에, 그 예측하에 지금 이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27년으로 예측을 하고 미국과 스웨덴의 연구기관에서는 30년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2050년으로 예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어쨌든 10년 후에는 북극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지금 전 세계가 북극 빙하 소멸을 막자고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재앙을 경제적 기회로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북극 운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검댕이라고 얘기하는 이것, 이게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85%가 증가했고 이것이 해빙을 가속화시킨다라는, 이것이 바로 온난화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북극항로에 서식하는 일각고래의 스트레스가, 그 호르몬이 20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여기에 쇄빙선 운항까지 증가하면 아무래도 북극 생태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비판도 있어요.

이러한 환경적 이유 때문에 글로벌 1위 해운사 MSC, 3위 CMA CGM과 같은 북극항로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무리 국익이라 해도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역사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아주 우연히 열린 바닷길, 뱃길이 새로운 물류 혁명을 이끌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강명구 위원 후보자님,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것 하고 답변 주세요.

북극항로가 가진 잠재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잠재성만 가지고 불확실성을 다 덮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 파괴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고려할 변수와 비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정부가 북극항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너무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이 불확실성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해야 되는데 지금 북극항로가 10년 후에 다 소진된다는 전제하에 해수부 부산 이전도 그렇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망도 그렇고 이런 게 너무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 학계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쭉 제기해 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김포공항을 확장하지 않고 인천 영종도에 인천 공항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 대국으로 가는 인프라를 깔았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여러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T 그렇게 키워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을 넘어선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북극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북극항로가 50년 뒤에 열린다 하더라도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한 총괄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부산에 오고—행정 기능을 총괄하는—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오고,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 본사가 부산으로 오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은행 동남투자은행을 신설한다면 부산-울산-거제도로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강의 조선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부산의 미음산단인지 부산의 녹산산단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조선기자재·해운기자재 결합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이 결합이 되면……

○위원장 어기구 그 부분은 계속 하실 말씀이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삼석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어기구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이제 마무리입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추추가질의입니다.

○김선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차례입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저도 여전히 북극항로에 대한 말씀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특수임무로까지 표현하셨고 또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해수부의 앞으로의 업무는 북극항로밖에는 없어 보일 만큼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수부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어떤 치밀한 계획 같은 것 없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올해 안으로 무조건 이전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북극항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 문명사적 변화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알겠고요.

장관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내년 3월 5일에 있는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넘기지 마시고, 사퇴하지 마시고 그 이후까지 꾸준히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내가 스펙 쌓기 위해서, 부산시장 출마하기 위한 스펙 쌓기 위해서 해수부장관에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시민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시로 이동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살아오신 어떤 여정이라든지 그간의 문체부라든지 정무위를 중심으로 하신 의정활동이라든지 동료 의원으로서 잘 지켜봤었고 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아마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이 북극항로라는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인식되고 이루어진다면 내년 부산시장을 위해서 3월 5일 전에 사퇴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오늘 하신 말씀에 무게나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이만희 위원님의 진심 어린 조언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재수가 스펙 쌓기용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장관으로 왔다? 제가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정도로 제가 간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내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일환이고 대한민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구상되고 공약화됐고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망국적인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반드시 극복하는 실적과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말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후보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요. 돈도 많이 안 주고 힘들어요. 이거 타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립해양해사 특수목적대학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 임호선 위원, K-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특수목적대학을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기간까지 다 봉사하시고 지금 이렇게 또 훌륭한 의원들이 되셨단 말이지요. 국립해양해사대학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저는……

○**이병진 위원**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99.7%를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해양 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배에 타서 일할 친구들이 있다, 없다? 없어지고 있다. 왜? 힘들고 대우도 좋지 않아요.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아니면 더 긴 시간을 공부하고 거기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해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산에 해양대학이 있고 목포에 해양대학이 있습니다. 양 대학 총장님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대학이 그쪽에 인재가 있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 수도권에 잘 수렴이 돼서 우수한 인재도 오고 우수한 교원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평택이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다? 그분들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택항 같은 경우에 제가 벌써 교육부지도 확보를 해 났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관련 부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글로컬30 지정 전에 교육부·해수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 해양대의 이원화된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의제를 삼아 논의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목포해양대 내년 상반기 안에 통폐합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병진 위원** 거기가 통폐합이 되고 수렴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평택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명일 10시에 국립해양해사대학교 평택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대공청회를 합니다. 장관님도 내일 한번 축하하러 오실래요?

○**송옥주 위원** 장관 아니에요.

○**이병진 위원** 후보자님, 오퍼버로 참석하실 수, 차관님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에 국회도서관에서 합니다.

○**임호선 위원** 부담드리지 마세요.

○**이병진 위원** 아니, 지금 국가의 대세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부담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정말 해양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 초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북극항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조승환 장관님도 평택을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한번 평택을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봐 주실래요, PPT 8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사진이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가 덮쳐서 어항에 있는 배가 출항을 못 하는 사진입니다, 언론 보도된 사진이고.

다음.

경남 남해 미조의 국가어항인데요. 평균 정박수가 355척인데 방파제 시설이 안 돼서 태풍이 불면 인근으로 피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 삼천포 수협 위판장인데 이게 하부 구조가 보면 낡은 게 아니고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대형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위판장입니다.

다음, 이게 고온 양식어류 폐사 작년도 사안인데 그 사진입니다. 한 7000만 마리가 폐사한 내용이었고.

그다음, 이건 어종의 변화가 심각하다는 데이터입니다.

다음, 이건 영덕 강구에서 아까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다랑어 폐사 사진인데요.

왜 이 사진을 제가 출력했냐 하면 이게 작년, 금년 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수산업계의 현장 사진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를 몇 개를 받았는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마치 해운·항만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듯한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 실제로 해운업계, 해운·항만이라는 부분은 기업이나 산업적인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수산 분야에 대해서 이렇듯 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감척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들어 있는데, 관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왜, 조금 도외시되지 않나 또 후보자님 답변 과정을 보면 혹시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게 주지 않겠나 하는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보내져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첫 지휘 방침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서천호 위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오를 말씀하셨지만 수산업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수산업계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역량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산 어민들 또 어업의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위원님께서 주신 우려의 말씀을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몇 장으로 우리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처

한 상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산은 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을 더 열심히 챙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수산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경태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하여튼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해양수산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질의 사항은 없고요.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도 어촌계가 있고요. 바다 없는 충북에 민물 낚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우리 충북이라는 점 꼭 잊지 말고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가 없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농해수에 왜 계시지 해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물동량 부분에서 보면 사실 직접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을 바로 가는 물동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려를 해 본다 그러면 상당히 장밋빛 공약이 되고 이게 해양수산부를 옮기는 하나의 명분이 된다. 또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러니까 빙해 도선사, 한국말로 빙해 도선사, 쇄빙선 사용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절차적인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항로가 정말 잠재성이 있는 항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대체 항로를 생각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항로다. 그것은 5년 안에 뭘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또 외교안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차분히 로드맵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정리해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 이전하고 해양수산부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까지 들으면 야단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산업은행의 해양 쪽 분야, 지역투자본부나 이런 쪽이 이전 되는 것이 맞지……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전형적인 공사 간의, 공공기관 간의 서로 일 토스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롭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해라’, ‘산업은행에서 해라’. 동남권투자공사에서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네가 해라’ 이런 식의 행태가 벌어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동남지역에서의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사실 지금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3조고. 거기에 네트워크나 또 어떤 금융 기반의 스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새롭게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투자 여력적으로 보면 3조에 대해서 저는 최장 1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서 과연 동남권에서의 투자 수요를 제대로 맞춰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여객선 공영제, 정말 제가 장관 하면서 무척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선원 공영제 부분은 한번 꼭 봐 주시고. 섬 주민들, 공동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삼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TAC나 금어기 그다음에 사실 쿼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잡는 어업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준공영제, 감척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배를 폐기시킬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유하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또 어종이나 어획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특정 부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해안 항구 같은 데 가서 선망에 가서 잡아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좋은 해소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나눠 났고 규제돼 있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준공영제 형태의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내항선원 부분들의 비과세 부분은 상당히 계속 불만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좀 찾으셔서 내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부분도 꼭 좀 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적선원 양성법 부분도 한번, 우리 국적 선원을 어떻게 하면 양성해서 계속 선원의 직위를 유지하게 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조승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잘 새겨들어 가지고 정말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정말로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늘 돌아보고 챙기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성과를 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이셔서 1분 더 드렸습니다.

○조승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금연뿐만 아니라 금주를 실천하고 계시는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안 한다고 했는데 기회를 주시니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해수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1%, 6조 7000억 정도입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힘 있는 장관님으로서 앞으로 임명되시면 딱 2배 정도 예산 늘렸으면 좋겠고, 그중에 우리 수산업 분야, 수산 분야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절반을 말씀하시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고맙습니다.

문금주 위원님께서 수산업계와 수산업 종사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열심히 듣고 이 수산업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객선 공영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일례로 경북 울릉군의 경우에 여객선 이용은 급증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희용 위원 모두 감사합니다.

꼭 장관님이 되시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릉군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서해5도, 일명 움직이지 않는 군함이라고 하지요. 그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는 측면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각별하게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 중에서 3건만 제출이 되고 나머지는 제출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아쉬운 마음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열심히 해 보시겠다는 그 의지 또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수부 공무원 출신에 비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다가 가셨으니깐. 그렇지만 3선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견해 또 여당 의원님으로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많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해양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 또 그 가족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해수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염원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추추가질의를 모두 마치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정책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요. 장관후보자님, 위원님들 질의를 잘 유념하셔서 우리나라가 K-해양강국, K-수산강국 건설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전재수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전재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해양수산 정책 구상과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직책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새기면서 해양수산 강국으로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 모두가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진지한 자세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전재수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서삼석 위원, 주철현 위원, 조정태 위원, 윤준병 위

원, 이만희 위원, 이원택 위원, 이병진 위원, 문대림 위원, 조승환 위원, 임미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회의는 내일 7월 15일 오후 1시 반에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정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출석 공직후보자

전재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정책기획관 김정주

○출석 참고인

이상국(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